

제3255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대기업 전기료 10.6원 인상... 中企·가정용 동결 3

무역금융 78兆 투입... 경제외교 성과 이행 4

코스피(8일) 2421.62(-22.34P) 코스닥 811.02(-13.35P)  
환율(달러당 원화) 1310.60(+2.7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868%(-0.019%p)

〈내년 1월 출시 예정〉

## 삼성 '생성형 AI' 출격... '갤S24' 더 똑똑해진다

### 자체 개발 '가우스' 첫선

언어·코드·이미지 3개 모델 구성  
문서요약·코딩 등 업무처리 혁신  
'온디바이스 AI' 기술도 선보여  
"향후 출시될 제품에도 활용할 것"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출시되는 제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내년 1월 출시되는 갤럭시S24 시리즈에 탑재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R&D 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AI 포럼 2023'에서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Samsung Gauss)'를 공개했다. 삼성 가우스는 정규 분포 이론을 정립한 천재 수학자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Carl Friedrich Gauss)로부터 영감을 얻은 생성형 AI 모델이다. 삼성이 추구하는 생성형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삼성 가우스는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언어 모델' △코드를 생성하는 '코드 모델'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미지 모델' 등 세 가지 모델로 구성됐다.

언어 모델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결맞은 답변을 생성해내는 모델을 말한다. 언어 모델을 통해 △메일 작성 △문서 요약 △번역 등 업무를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외부 접속망을 거치는 클라우드(Cloud) 방식과 기기 내부에 자체적으로 탑재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방식에 모두 활용된다.

**“올해를 빛낸 국가대표 건설사”**



**2023 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

“2023 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이 8일 서울 강남구 건설서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영예의 대상은 ㈜부영주택이 수상했다. (왼쪽 앞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박병우 HDC현대산업개발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소장, 정성령 DL이앤씨 분양마케팅 담당, 서희중 대우건설 경영지원담당 상무, 이석중 현대건설 건축주택전기통신팀장, 오경준 (주)한화 건설부문 외주상생혁신팀장, 박현순 (주)부영주택 전무, 이현주 GS건설 조달기획담당 상무, 김영조 자이에스앤디 주택개발사업본부장, 문광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안전경영실장, 김화란 포스코이앤씨 커뮤니케이션실 브랜드섹션팀장, 최원석 금호건설 주택영업담당 상무, 이경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유정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김덕현 이투데이 대표,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이희원 산업통상자원부 홍보담당관, 권혁진 SK에코플랜트 언론홍보팀 부장, 송경삼 두산건설 PR팀 PR팀장 등 수상자와 시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관련기사 21·22·23면

조현호 기자 hyunho@

코드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AI 코딩 어시스턴트 '코드아이(code.i)'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개발자들이 쉽고 빠르게 코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정보값이 포함된 코드 생성 명령을 내리면 AI가 이해하고 알아서 코드를 생성해주는 형태다. 다만 삼성전자는 코드 모델의 경우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고, 사내에서만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지 모델은 사진이나 그림 등의 적인 이미지를 손쉽게 만들고 기존 이미지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해상도 이미지의 고해상도 전환 등

을 쉽게 해준다. 삼성전자는 삼성 가우스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기술도 소개했다.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탑재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전송 없이 △기기 제어 △문장 요약 △문법 교정 등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업계에선 삼성 가우스를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S24 시리즈에 탑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미 온디바이스 AI 활용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5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미주총괄에서 개최한 '삼성시스템LSI 테크데이 2023'에서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AP) '엑시노스(Exynos) 2400'을 공개하고, 향후 스마트폰에 적용될 문자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새로운 생성형 AI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전작인 '엑시노스 2200' 대비 AI 성능이 14.7배 향상됐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24 시리즈에 엑시노스 2400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가우스는 향후 생성형 AI가 들어가는 제품들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생성형 AI 연구

를 통해 소비자 경험 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이슨 웨이 오픈 AI 연구원 등 국내외 AI 전문가들이 모여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대현 삼성리서치 글로벌AI센터 부센터장은 "생성형 AI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업계와 학계 리더들과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생성형 AI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경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 가계빚, 2년 만에 증가폭 최대... 'DSR 확대' 긴급처방

### 금융위, 가계대출 점검회의

지난달 가계대출이 또다시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세부 방안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한 밀착관리도 들어간다. 또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관련기사 14면

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정부의 자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2년여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10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3000억 원 수준이었다. 올 들

10월 소금융권 가계대출 6.3兆 ↑  
대출 증가 모니터링... 은행 밀착관리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 부담 완화

어 최대 증가 폭이자 2021년 9월(7조8000억 원)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규제를 통해 증가 속도를 늦추는 한편 고금리 위주로 가계부채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DSR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항목을 줄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할 예정인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도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산정기간이 줄어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은행별 고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혼합형 대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던 '고정금

리·분할상환 행정지도'는 개편해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형태의 '신(新)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별·용도별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 조치도 시행된다.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예금보험료 산정 시 고정금리 실적과 연동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고, 혼합형 대출을 순수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행정지도로 보완하는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ijy0403@

## 반도체 회복에... 경상수지 5개월째 흑자

수출보다 수입 줄어든 '불황형' 지속  
상품수지 74억달러... 6개월째 플러스

경상수지가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불황형 흑자' 구조였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9월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보면 9월 경상수지는 54억 2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4월 적자를 기록한 이후 5월부터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관련기사 4면

흑자 구조는 '불황형 흑자'로 나타났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556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이보다 감소 폭이 더 큰 482억 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전년 동기보다 14.6% 감소한 100억 6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전월(-21.2%)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다.

수출 규모가 가장 큰 전기·전자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176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미국, EU, 중남미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은 미국·EU를 중심으로 승용차 수요가 호조를 지속하고 반도체도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감소세가 둔화했다"며 "수입은 에너지 수입 가격 하락 영향으로 원자재가 큰 폭 줄어든 가운데 자본재와 소비재도 줄어들었으나 감소세는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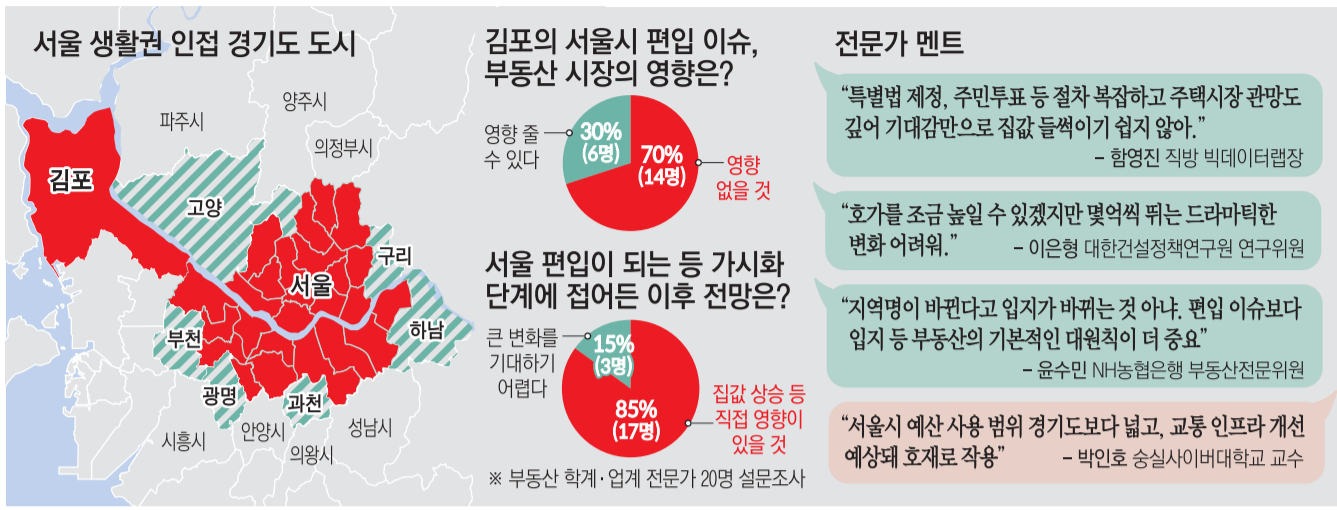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74억 2000만 달러 흑자로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서비스수지는 31억 9000만 달러 적자로 전월(-15억 7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을 확대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는 9억 7000만 달러 적자로 전월(-11억 4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을 축소했다. 서희희 기자 jhsseo@

# 70% “김포로도 없다” 회의론 우세... “인프라 공유” 긍정론도

## 부동산 전문가 20인 설문조사

“선거 앞둔 이슈성 어젠다” 지적  
“수요자 기대감 커질 것” 의견도  
의회통과·주민투표 등 과제 산적  
85% “편입엔 집값상승 영향권”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슈성 어젠다라는 지적에도, “진짜 서울특별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피어오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시장 내 들뜬 기대감과 회의적 시선이 교차하는 가운데, 본지는 ‘서울시 김포구’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전문가 20명에게 물고 그 이유를 들었다.

8일 본지가 부동산 학계·업계 전문가 20명에게 ‘김포의 서울시 편입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설문한 결과, 전체의 70%인 14명이 ‘현시점

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나머지 6명(30%)은 ‘이슈만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손을 들어줬다.

실제 편입이 되는 등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 이후 전망에 대해서 85%(17명)가 ‘집값 상승 등 직접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15%(3명)는 ‘편입 이후에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우선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이유로는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 첫손에 꼽혔다. 의회 통과와 주민투표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결론이 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적 절차를 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단계성 기대감만으로는 주택시장의 원활유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 주민 투표, 의회 의결 같은 절차들이 필요하다”며 “최근 주택시장은 고금리, 급매물 소진 이슈로 거

### 전문가 멘트

“특별법 제정, 주민투표 등 절차 복잡하고 주택시장 관망도 깊어 기대감만으로 집값 들쭉이기 쉽지 않아.”  
-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호가를 조금 높일 수 있겠지만 몇억씩 뛰는 드라마틱한 변화 어려워.”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역명이 바뀐다고 입지가 바뀌는 것 아냐. 편입 이슈보다 입지 등 부동산의 기본적인 대원칙이 더 중요”  
-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서울시 예산 사용 범위 경기도보다 넓고, 교통 인프라 개선 예상돼 호재로 작용”  
-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란 진단이다. 교통·인프라의 개선 없이 행정구역 변경만으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대원칙은 인프라 개선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전문가들은 ‘서울특별시’로 행정구역 앞자리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봤다. 서울이란 상징성과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재정 자립도, 풍부한 교통·교육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커질 것 이란 해석이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편입 현실화 여부는 나중 문제로 두더라도, 김포 입장에서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예산 사용 범위가 넓고, 교통 인프라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한진리 기자 truth@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리스트는 온라인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개인 “하루에 전화 한 통 오려나”... 매물·호가 잠잠

대상지역 현지 반응 살펴보니  
“안될 것 같다” 시장반응은 시큰둥  
“교통문제 해결” 집값호재 기대도

“문의가 종종 있기는 한데, 지역 내에서는 밖에서나 아직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포시 한 공인중개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일주일 이 흘렀다. 국민

의힘은 김포는 물론 인접 지역까지 포괄하는 ‘메가시티 서울’ 문제를 다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일 메가 서울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진다. 하지만 정치권과 달리 서울 편입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조용하다.

8일 현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편입 후보지로 거론되는 김포, 하남, 부천, 안양, 구리, 고양, 광명, 남양주 등의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호

가를 올리거나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는 찾기 힘들었고, 공인중개사무소로 관련 문의가 오고 있지만 하지만 많지 않다.

김포시 감정동의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대비해 선점하려는 사람들이 문의 전화를 하는데 (그 횟수가) 하루 한 통 정도”라며 “지금은 말만 나온 단계라 서울 편입에 크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촌에서 사무실을 둔 공인중개사는 “최근

에 투자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호가는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과 거리가 먼 지역은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김포 구래동 공인중개사는 “김포가 서울로 가더라도 고촌이나 일부만 되고 여기까지는 안될 것으로 생각해서인지 영향이 없다”고 했다.

김포 이외의 지역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남시의 공인중개사는 “호가 움직임은 아직 없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가 되면 교통이나 행정적으로 경기도일 때보다 나아질 것이라 생각에 편입을 바라는 주민들이 있다고 전했다.

김포에서 광명으로 이주한 직장인 A

씨는 “서울인지 경기도인지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며 “편입된다고 크게 바뀔 게 없을 것 같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편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구리시민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서울에 편입되면 교통문제가 쉽게 풀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른 구리시민은 “토핑 등의 개발도 더 빨리 진행돼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부천에 거주 중인 직장인 B 씨는 “경기도 민보다는 서울시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정용욱 기자 dragon@

# 장애인고용, 함께하는 내일

장애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장애인 고용 기업의 성공을 위해,  
장애인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 장애인서비스**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서비스**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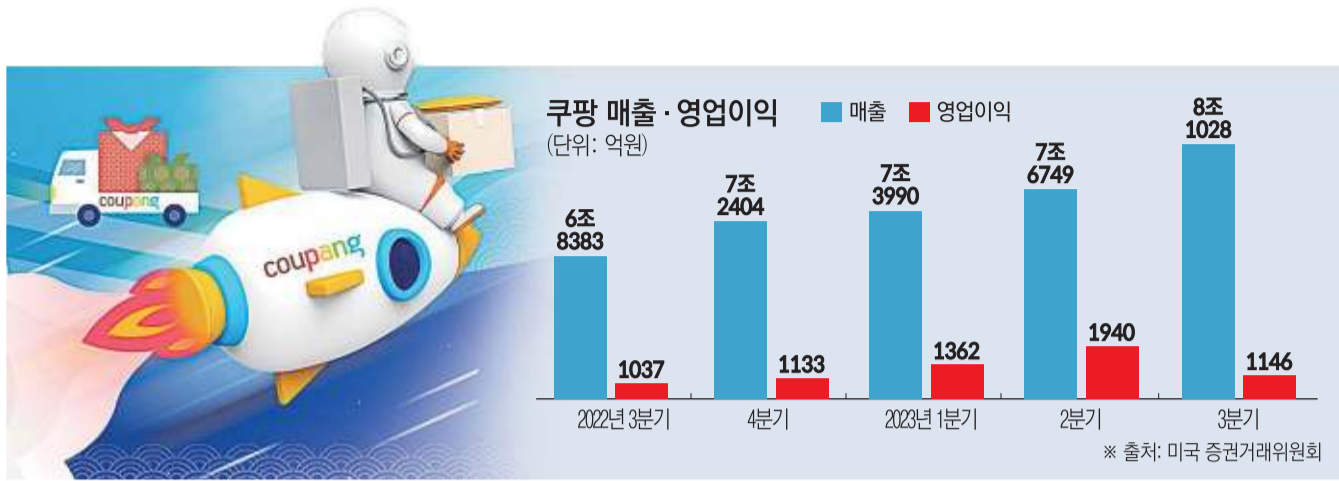


〈창업자·쿠팡 Inc 의장〉

# 김범석의 '로켓매직'... 쿠팡, 창사後 첫 연간 흑자 '눈앞'

## 3Q 매출 8조 돌파 '사상 최대'

영업이익 11% 증가한 1146억원  
활성고객 처음으로 2000만명 넘어  
대만 로켓배송 등 성장사업 약진



쿠팡이 올해 3분기 분기 매출 8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분기 내 한 번이라도 쿠팡에서 구입한 활성 고객 수도 2000만 명을 돌파했다. 5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행진으로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쿠팡이 8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3분기 매출은 8조1028억원(61억8355만 달러·분기 평균환율 1310.39)으로 전년 동기(6조8383억원) 대비 18% 늘었다. 달러 기준 매출은 21% 늘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146억원으로 전년(1037억 원)보다 1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1215억 원)과

비슷한 1196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쿠팡은 지난해 3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흑자, 올해 들어 3개 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연간 흑자 전환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쿠팡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흑자 규모는 444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2288억 원 영업손실을 낸 점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창업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상품군과 고객이 증가하는 '플라이휠' 가속화, 고객 참여가

높아진 유료 멤버십(와우 멤버십), 대만 로켓배송 순항을 이번 실적 비결로 꼽았다. 김 의장은 "다년간의 독보적인 투자와 고객 경험, 운영 탁월성에 집중한 결과 견고한 성장세·수익성 확대를 지속해서 달성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쿠팡 활성 고객 수 2000만 명 돌파, 전년 대비 14% 증가 = 김 의장은 우선 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3P)에서 상품군이 넓어진 것이 실적 개선에 주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무적인 것

은 고객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쿠팡의 3분기 활성 고객 수는 204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고객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13%) 이후 가장 높다. 활성 고객 1인당 매출은 303달러(39만7040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늘었다.

김 의장은 "로켓배송과 로켓그로스"를 통한 상품 확대로 고객 수와 지출액에서 더 높은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성 고객(와우 멤버십) 증

가도 긍정적인 요소다. 할인 혜택 론칭 이후 쿠팡이츠를 사용하는 와우 회원은 90% 증가했다. 할인 혜택이 적용된 지역의 75% 이상에서 거래량이 2배 늘었다. 김 의장은 쿠팡이츠의 시장점유율은 연말까지 약 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 로켓배송, 한국 첫해 성장세보다 빨라 = 1년 전 진출한 대만 로켓배송·로켓직구 사업도 급성장세다. 해외사업(대만)과 쿠팡이츠·쿠팡페이 등 성장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41% 늘어난 2억 1752만 달러(2850억 원)의 매출을 냈다. 쿠팡은 최근 대만에 2호 풀필먼트센터를 열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현지에 3호 풀필먼트센터를 열 계획이다.

김 의장은 "대만 로켓배송은 출시 첫해에 한국 로켓배송이 첫해 성장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쿠팡 애플리케이션(앱)은 올해 대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앱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자구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가정·중소 전기·가스요금 동결 대기업 전기료만 10.6원 올린다

### 한전 재무개선·전기료 조정방안

오늘부터... 대기업 月부담 200만원↑  
가스공 재무 등 살펴 요금조정 검토

9일부터 대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은 오르지 않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전은 산업용(약 44만 호) 중에서도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시설 규모 등 요금 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로 세부 인상 폭은 차등화했다. 산업용(을) 가운데 고압A(3300~6만6000V 이하)는 kWh당 6.7원, 고압B(154kV)와 고압C(345kV 이상)는 kWh당 13.5원을 각각 인상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용(을) 고압A 사용기업의 월평균 사용량은 228메가와트시(MWh)로, 현재 전기요금은 월평균 4200만 원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같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전기요금은 200만 원가량 늘어난 약 44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한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4만2000호로 집계됐다. 전체 이용 고객의 0.2%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26만 7719기가와트시(GWh)로, 총사용량(54만7933GWh)의 절반(48.9%)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7조 원,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가 201조 원에 달하는 등 재무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월)와 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가스요금은 동결한다. 지난해 초 이후 다섯 차례 인상해서 요금이 45.8% 올라 국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난방수요가 집중돼 국민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도 동결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가스공사 재무구조와 미수금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보면서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당신은 항상 웃을 수 있게

## 겪어보면 다른 보험 현대해상

마음이 ♥ 합니까  
H 현대해상

# “기업투자 활로... TK공항 예타면제·무역금융 78兆 투입”

## 정부, 18개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30년까지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역금융 78조 원을 투입해 한·중동 정상 외교에서 거둔 경제외교 성과를 이행한다. 수출보험료는 내년 상반기까지 반으로 낮추고, 수출바우처는 두 배로 늘린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최대 46조 원 규모)를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 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를 통해 차질

## 비상경제장관·수출투자대책 회의 파급효과 큰 사업 신속이행 지원 특구·산단개발 인허가 절차 면제 정책금융기관에 수혈 ‘수출박차’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입지, 환경 규제 등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지역 관광 개발 등 개별 사업 투자기반·여건을 개선해 6개 프로젝트 추진을 돕는다. 해당 프로젝트는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대구·대전 연구개발특구 개발 △전남 해상풍력 발전 △경북 영천 경마공원 건립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 등이다. 또한 △하남 K-POP 공연장(The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Sphere) 설립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부산 세계적 미술관 분관 건립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5개 프로젝트에 대해

서는 특구·산단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 면제·단축 등으로 사업의 신속 이행을 지원한다. 사업비 2조 6000억 원 규모로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의 경우 활주로·접근도로·터미널·주차장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고속도로·철도 구축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발주처와 사업자 간 갈등·분쟁 조정·중재를 통해 7개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도 지원한다. 7개 프로젝트는 △고양 K-컬처 밸리 조성 △고양 관광속박시설 건설 △인천검단신도시역세권 개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덕산 일반산업단지 조성 △수색역세권 DMC 개발 △김포 한강 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무역보험

공사에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간추진위원회’를 열어 단기 수출지원 대책을 내놨다. 연말까지 무보,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78조 원을 투입해 수출상승세를 이어간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맞춰 수출 보험 한도도 30% 확대한다. 엔저, 강달러 등의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도 50% 상향한다.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新)수출 성장동력 분야에 수출 인도 압박 시 급행료 없이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한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이동근(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란봉투법, 산업생태계 위협 통과 땀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 경제6단체, 입법중단 성명서 “기업 정상적인 사업 불가” 호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강하게 반대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8일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우리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건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

다. 개정안에 근로제결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당사자로 끌어들이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나 모레 국회에서(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되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동석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이 통과되면) 파업 손해배상도 지금 안처럼 되면 불법 파업을 더 조장할 수밖에 없다”며 “반헌법, 반시장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 韓, 7년여만에 ‘美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

### 스위스와 함께 제외, 베트남 추가 감시대상 탈피, 외환개입 부담 덜어

미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2016년 4월 지정된 후 7년여 만이다. 감시 대상에서 벗어난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실상 경상수지 흑자 축소에 기인한 것이어서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는 남았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간하고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오른 국가는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개국이다. 이 중 베트남이 새로 추가됐고 기존 명단에 있던 한국과 스위스는 제외됐다.

환율관찰대상국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에서 150억 달러(약 20조 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가운데 2가지

평가 내용	한국 해당여부
상품·서비스 150억달러(약 20조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YES 380억달러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NO 0.5%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NO -1.8%

※출처: 미국 재무부 하반기 환율 보고서

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이번 6개국 중 심층분석 대상은 없었다.

재무부는 “보고서 작성 기간 미국 무역 상대국 대부분의 외환 개입은 달러 매도 형태로 이뤄졌다”며 “이는 각국 통화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한국과 스위스는 2015년 제정한 법(무역촉진법)에 따라 2회 연속 3개 기준 가운데 1개만 충족했기 때문에 감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

했다. 환율관찰대상국이 됐다 해서 별도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의 감시 대상에 들어갈 경우 향후 환율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당국이 쉽게 외환 시장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포함됐지만, 직전 보고서부터 대미 무역 흑자만 해당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0.5%로 분석됐다. 현재 한국은 수출 증가가 아닌 수입 감소로 흑자를 내는 ‘불황형 흑자’를 겪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한동훈·이동관 탄핵’ 폭주하는 巨野... ‘협치국회’ 파국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강행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상정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준비하고 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등을 논의하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회에서 한동훈 장관

###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이어 오늘 본회의서 탄핵 상정 유력 與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대처

에 대한 탄핵소추안 논의는 없었지만, 이 역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추진한다. 앞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

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 각각에 초·재선과 중진 의원 15명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개인당 3시간 이상의 토론 시간을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총 60명의 필리버스터 신청 의원 60명 가운데 중진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권성동 의원 단 한 명이며, 나머지 59명은 전부 초·재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이후 종결된다는 국회법을 활용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카드로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 중력으로 이동, 밀폐 상태에서 의약품 생산... 오염 '제로'

## 4 대웅제약 오송공장

원료·제품에 사람 손 닿지 않아  
중앙통제실 등 IT시스템 완비  
6개 카메라 입체검사 불량 적어  
우루사·엔블로·펙수클루 생산  
품질관리 국내외 실사 합격점

“청량을 제외한 모든 공정에서 원료·제품에 사람 손이 닿지 않아 오염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이 2100억 원을 투입해 2017년 준공한 오송공장은 공정 대부분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 특히 5단계가 최고인 스마트공장 단계에서 4단계 인증을 획득했다. 품질 규제 수준이 높은 제약산업 특성상 스마트공장을 4단계까지 끌어올린 건 이례적이라 평가다.

오송공장은 내용고형제를 생산하는 A동과 주사제를 생산하는 C동 2개 시설을

갖고 있다. A동에서는 대웅제약의 효자 상품인 간 기능 보조제 ‘우루사’와 블록버스터 제품의 가능성을 보이는 당뇨병 신약 ‘엔블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가 생산된다.

A동의 내용고형제 생산공정은 청량-과립-혼합-타정-코팅-선별-포장 순으로 진행된다. 원료를 투입하는 과정 일부만 사람이 개입하는 수준으로 자동화시스템을 갖췄다.

각 공정마다 한두 명의 관리 인원이 모니터링을 하지만, 중앙통제실에서도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수준으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갖추고 있었다. 대웅제약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전자적 자원관리(ERP), 품질보증시스템(QMS), 건물관리시스템(BMS) 등 공장 운영에 필요한 IT시스템을 모두 구축해 원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실시간으로 공정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다.

윤상인 대웅제약 오송생산관리팀 매니



저는 “원료 입고부터 제품 출하까지 의약품 전 공정에서 제품과 사람의 접촉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공정마다 지정된 설정값에 따라 원료 투입량을 제한하고 정량 투입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과립부터 코팅까지의 이동은 ‘수직이송시스템(VTS)’이 적용됐다. 위층과 아래층에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따라 다음

공정으로 자동 이동한다. 중력을 이용해 밀폐된 상태로 원료 등을 옮겨 외부로부터 오염될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한다. 작업자의 인위적인 오류도 대폭 줄었다. 과립과 혼합과정에서는 위험물 운반용기(IBC) 자체가 360도 회전하며 반제품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다.

선별 과정에서도 6개의 카메라를 적용한 입체적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불량률

을 최소화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슈아내는 과정을 거치면 피로감이나 집중도에 따라 선별 작업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대웅제약은 올해 9월 브라질 식의약품 감시국(ANVISA) 실사에서 ‘지적 사항 없음’으로 인증을 통과했다. ANVISA는 미국 식품의약품(FDA)에 준할 정도로 심사기준이 까다롭다. 이승하 대웅제약 생산본부센터장은 “불량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구조다. 스마트공장은 의약품 품질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있는 생산시설은 매출향상에도 이바지했다. 대웅제약은 별도기준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 9024억 원, 영업이익 1013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펙수클루는 국내 출시 1년 만에 12개국에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4개국에 승인받았다. 엔블로는 출시 3개월 만에 주요 종합병원에 랜딩하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오송(청주)·노상우 기자 nswreal@

## “10~20년 내 완전 무인화 구축 세계적 제조·품질 경쟁력 확보”

### 인터뷰

이승하 대웅제약 생산본부센터장  
AI가 실시간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레벨 5단계 목표

대웅제약 오송공장은 대지 6만 6000㎡(2만 평), 연면적 4만 4000㎡(1만 3300평) 규모로, 오류를 최소화한 첨단 스마트공장이다. 이곳에서 주요 제품 생산을 총괄하는 이승하(사진) 대웅제약 생산본부센터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공장 내 사람이 필요 없는 완전 무인화를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제조·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품질 관리에서 국내외 실사를 성공적으로 수검하며 합격점을 받았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기존 공장 대비 40% 지표 개선을 이뤄냈다.

대웅제약은 현재 4단계인 오송공장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5단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5단계는 모니터링부터 제어, 최적화까지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공정 변경과 오류 대응 등을 사람의 의사결정 없이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완전 무인화’ 수준까지 올려서게 된다. 이 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품질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선도적 대응을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오송공장 내 시스템은 자회사 아이디에스엔트러스트(Ids&Trust)가 직접 개발하고 구축했다. 이 센터장은 “제약산업을 가장 잘 아는 게 우리니까, 우리 그룹 내에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해 맞춤 디자인 솔루션을 만들었다. 세상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검증하고 사업화까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9월 진행된 브라질 식의약품 감시국(ANVISA)의 오송공장 실사에선 ‘지적 사항 없음’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 센터장은 “무결점 실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자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신뢰도”라며 “다른 국가 GMP 인증 역시 의약품 개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송공장은 실시간으로 공정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제어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변질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를 갖췄다. 이 센터장은 “제조시험 기록 및 모든 로그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관리된다. 원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서버를 공장 내에 구축하고 있어 외부접근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그 누구도 원 데이터에 접근해 데이터값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자신했다.

AI가 실시간 대처하는 완전 무인화·자동화인 5단계 인증에 대해 “장기적으로 볼 때 5단계로 올라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 센터장은 “제약산업에서 의사 결정을 AI가 하는 것은 아직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선도형 공장, 글로벌 표준공장이 되고자 하는 목표로 나아가고자 한다. 10~20년 내 모든 공정의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송(청주)·노상우 기자 nswreal@



## 안심. 기다림 으로부터 시작

휴전작업은 전기를 멈추고 시행하는 전기공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전기 공사의 96%는 전기가 흐르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작업할 경우 작업자는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휴전작업 동안 발생하는 잠깐의 정전을 양해해주세요. 당신의 배려로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휴전작업 시 행동요령

- 안내 누락 방지를 위한 사전 연락처 경보(123전화)
- 전기장치 플러그는 뽑고, 누전차단기 OFF
- 냉각고운은 닫은 상태로 유지
- 냉방 4시간 냉동 4시간 온도 유지 가능
- 컴퓨터 작업 시 파일 미리 저장 등 정전 대비 조치

# 尹, APEC 짝고 유럽으로... '글로벌 책임외교' 강행군

15~17일 美서 APEC 정상회의  
20~25일 다시 유럽으로 순방길  
英 국민 방문... FTA 개선 논의  
佛선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영국 및 네덜란드 국민 방문, 프랑스 순방 등 올해 마지막 정상 외교 일정에 나선다. APEC 정상회의, 영국 국민 방문에서는 투자 신고식과 양해각서(MOU) 체결 등 경제 성과가 예상된다. 프랑스 순방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각국 대표단과 만날 예정이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글로벌 책임 외교 강화'라는 목적하에 15~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8일 오후 한국에 돌아온다. 다음날인 19일 윤 대통령은 국내 현안을 보고받고 필요사항에 대한 지시도 할 예정이다.

이어 20~23일 영국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런던에 국민 방문한다. 23~24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전에 뛰어들다. 프랑스에서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25일 귀국길에 올라 다음날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15일(이하 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를 연다. 같은 날 오후에는 APEC CEO Summit(서밋)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투자 신고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첨단기술 분야 한인 미래세대와 대화를 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16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는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과 비공식 대화를 한다.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열리

는 이번 정상회의 첫 세션은 업무 오찬 형식으로 열리며, 각국 정상들은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한 뒤 정상 만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다자회의인 APEC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양자 회담 가능성도 있다. 김 1차장은 이에 대해 "다른 다자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몇몇 국가와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APEC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23일까지 3박 4일간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런던에 국민 방문한다. 한-영 비즈니스 포럼, 영국 왕립학회가 개최하는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 포럼, 런던의 금융 명예시장 격인 '로드 메이어(Lord Mayor)' 주최 만찬 등 경제 일정과 함께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의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디지털, 인공지능(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미래 협력 방안을 담은 '한-영 어코드 문건'도 채택할 예정이다. 특히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한국의 주요 교역 투자 대상국이자 전략적 통상 파트너인 영국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양국 기업 간 수십 건의 MOU 체결도 할 예정이다.

이번 영국 국민 방문에서는 한-영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논의가 이뤄진다. 공급망 재편에 나선 영국 시장에 우리 기업이 원활히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장관급 공급망 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기업인이 참여하는 경제 행사 등으로 첨단 공급망 협력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방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왼쪽 두 번째) 이탈리아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딸을 영접한 뒤 함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에 선거제 개편 입장을 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2일이 예비후보자 등록일이기 때문에 이달에 합의를 끝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은 3월 "12대 선거부터 21대까지 평균 사표율이 무려 48.98%다. 국민이 찍은 표의 반은 선거 결과에 전혀 안 나타나는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에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걸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논의는 진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긴 했으나 의사가 모아진 것은 아닌 듯 하다"라면서 "여전히 교착 상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선거제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며 논의가 멀

선거제 재편·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총선 1년 전이지만 지켜진 적 없어  
'위성정당 저지'엔 발빠른 움직임

어져 있음을 시사했다. 여야가 앞서 지역구 소선거구제 유지와 3개 권력별 비례대표제 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뒤 논의에 진전이 없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때도 시한을 넘겼고, 끝내 선거구가 확정되는 2월 경에 급하게 합의됐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 거 같다"고 예상했다.

21대 총선 때는 선거일 39일 전, 20대 총선 때는 42일 전에 여야가 극적 합의했다.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총선 1년 전이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

다만 21대 총선에서 불거졌던 '위성정당' 사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과 '한국의 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인 금태섭 전 의원 등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공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의무화를 제안한다"고 했다.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정당이 비례대표도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해서 위성정당을 밀어주는 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양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든 위성정당 출현은 막을 수 없다"며 "입법 기관이 썬스 정당을 만들고, 맹점을 활용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병립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탄희 기자 nancho0907@

## 與 총선거획단 "현역 20% 공천 배제안 검토"

국민의힘 '국민 마음 총선거획단'이 8일 공식 출범해 내년 총선 준비에 착수했다. 이들은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등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총선거획단장인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그 바람을 담아 공식 명칭을 '국민 마음 총선거획단'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막연한 감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 체계적인 총선 전략을 짜겠다"며 "필요하면 얼마든지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겠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혁신위의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요구에 대해 "타입라인에 따라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안을 공천 과정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절차대로 세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청년 공천과 관련해서는 "기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 마음 총선거획단 1차 회의에서 이만희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정치를 오래 한 분과 새롭게 출발하는 여성이나 청년이 출발 선상에서 겹겹이, 가급적이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며 "배려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세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총선거획단의 활동 기간은 12월 20일까지다. 매주 1회씩 총 7차례 회의를 통해 공천 제도를 정비하고 당의 핵심 정책 공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탄희 기자 nancho0907@

## 인요한 "3호 혁신안은 청년·미래"... 흥준표에 "도와달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호 혁신안 마련을 위해 대구로 내려가 대학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의) 다음 주제는 미래다. 미래 안에는 청년이 있다"고 설명했다. 흥준표 대구시장에게는 "연말까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 전원은 8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프라자에서 열린 '국민의힘 혁신위-경북대 재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인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제는 미래"라면서 "미래 안에는 청년이 있고, 여러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안 마련에 청년들의 목

대구서 경북대 재학생과 간담회  
'혁신안에 청년 목소리 적극 반영'


인요한 도움 요청에 흥준표 '냉랭' 洪 "듣보잡 너무 설쳐" 친윤 저격


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선 여당 청년정책의 허점과 보완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취합하고, 추후 몇 차례 회의를 더 거쳐 청년·여성 등 다양한 성을 키워드로한 3호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청을 방문해 흥 시장과 만났다. 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흥 시장에게 "(당에) 애착이 있고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며 "연말까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흥 시장은 "윤 대통령을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나서서 중진들의 군기를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에 중진의 역할이 없다"고 당내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중진들이 역할을 조정해야 하고 여야가 타협해야 하는데 역할이 전혀 없다"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에 당에 소위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당의 허리가 없어져버렸다.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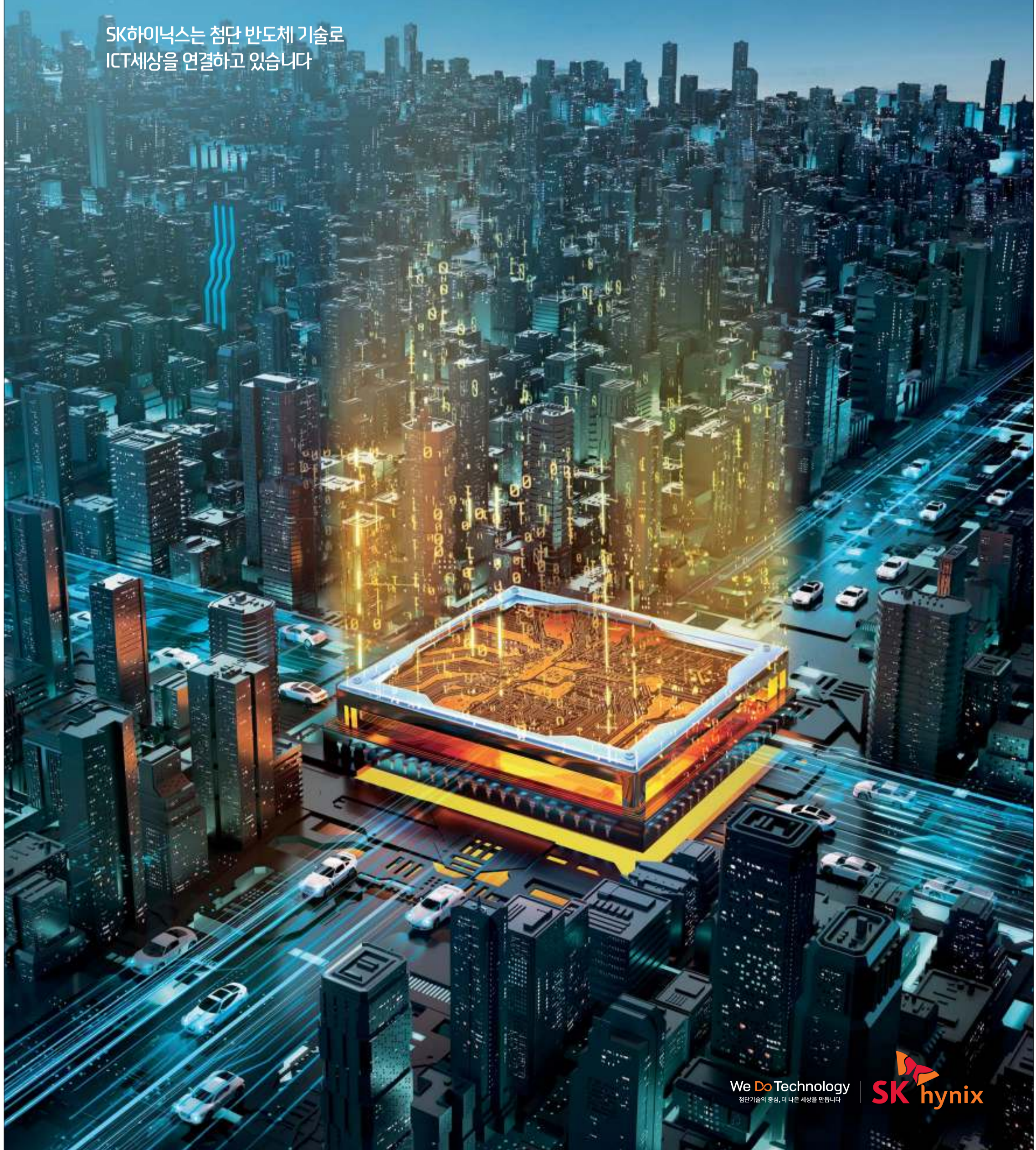
대구=김은재 기자 silverash@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 미래의 길을 잇는 반도체 SK하이닉스로부터

SK하이닉스는 첨단 반도체 기술로  
ICT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 후보험 한약·약침처방 횡수 제한... 과잉진료 줄인다

## 진료수가 심사 규정 개정안

앞으로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이 1회 최대 7일로 줄어들고 약침 시술횡수 기준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는 자

## 2년새 한의 진료비 27% 급증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로 줄고 환자 약침 시술횡수 기준 구체화 "年 300억~500억원 절감 기대"

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구 의료계, 보험계,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

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2020년 1조1000억 원에서 2020년 1조4000억 원으로 2년 만에 27%나 급증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처방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처방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한약봉지(첩)에 싼 약으로 한약재는 대부분 처방이다. 또

환자 상태에 기반을 둔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 처방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처방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횡수 기준을 0~1주간 매일, 2~3주간 주 3회, 4~10주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로 구체화했다.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 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스마트국토엑스포 개회 '2023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산업현장용 로봇이 시연되고 있다. 스마트국토엑스포는 공간정보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며, 관련 기업의 판로 개척 및 수출지원을 위한 전시회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성인 70% "노후 준비"... 국민연금·예금 順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의 76%(본인·배우자)는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세 이상 인구 중 69.7%는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나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2년 전인 2021년보다 2.3%포인트(p) 상승했다. 60세 이상은 2021년 63.0%에서 2023년 65.7%로 2.7%p 늘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9.1%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50~59세가 66.4%로 가장 많았고, 19~29세 62.4%, 30~39세 60.2%, 40~49세 59.8%, 60세 이상 52.4% 순이었다.

두번째로 많은 노후 준비 방법은 예금(15.7%)이었다. 이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8.1%), 사적연금(5.4%), 부동산(4.9%), 퇴직급여(3.8%) 등이 뒤를 이었다.

노후 준비를 하고(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준비할 능력 없음

2021년보다 준비자 2.3%p 늘어 고령자 76% 스스로 생활비 마련 성인 43% "취미 활동으로 노후를"

(38.0%), 앞으로 준비할 계획(34.3%), 아직 생각안함(19.0%) 순으로 높았다.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소득대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건강보험(57.2%), 국민연금(57.1%), 고용보험(38.3%)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전보다 해당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모든 직종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고용보험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후 소득지원이 36.9%로 가장 많았고, 의료·요양보호 서비스(30.1%), 노후 취업 지원(21.7%) 순이었다.

19세 이상 인구 42.9%는 취미 활동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여행·관광 활동(29.7%), 소득창출 활동(12.7%) 등

이었다.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확대됐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중 76%는 본인·배우자가 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72.5%)보다 3.5%p 증가했다. 이어 자녀·친척 지원(12.0%), 정부·사회단체 지원(11.9%) 순이었다. 2년 전보다 2.1%p, 1.5%p 감소했다. 다만 고령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본인·배우자 부담 비중은 낮아지고, 자녀·친척, 정부·사회단체의 지원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본인·배우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57.8%), 연금·퇴직급여(29.0%), 재산소득(8.1%) 순으로 많았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 2년 전보다 0.5%p 늘었다. 19세 이상 인구 중 도움이 필요한 특정 상황 발생 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74.0%로 2년 전보다 1.2%p 늘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평균 2.3명이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가스공, 4차 산업기술 활용 '경영 혁신'

### 스마트 안전관리·업무 효율성 ↑

한국가스공사가 고객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올해 8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한 이후 4차 산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먼저 로봇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한다. 이를 통해 전 사업 영역의 불필요한 업무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최소화해 고부가가치 업무 집중도를 높여 인력 운영 효율성을 올리고 수작업 또는 육안 검증 시 발생하는 휴먼 에러를 크게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빠른 피드백이 필요한 업무에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구축해 적시성 있는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자연어를 이해하는 챗봇에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빠르게 답변

을 받아 해결,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끌어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혁신 기술을 작업관리, 사고 예방 대응 등 안전 분야 전 과정에 적용해 최고의 안전관리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각오다.

당진 생산기지에 하역, 저장, 송출, 계량 등 천연가스 전 생산 공정에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해 가스공사 최초 스마트 플랜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수집하고 AI 기술로 분석해 설비 고장·중단을 예방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 운전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계통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내부 시스템 및 외부 기관 보유자료 연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미리 예방,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감독자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작업 안전관리 역량이 달랐던 문제점을 최소화해 현장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더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새만금 3·7공구 1년 앞당겨 매립... 기업 지원팀 보강"

한 총리, 착공식·기업간담회 주제 총 3.81km<sup>2</sup>... 2025년부터 용지 제공

정부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 조기매립을 1년 앞당겨 2025년부터 기업에 용지를 제공한다. 또 새만금개발청에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기업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총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과 입주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3·7공구 매립사업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하게 돼 늘어나는 토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새만금국가산업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입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1·2·5·6공구 산업용지(5.3km<sup>2</sup>)의 분양률이 84%를 기록 중이다. 애초 3·7공구 매립공사는 2025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기업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역이용협의와 매립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단축



한덕수(맨 오른쪽) 국무총리 등 내빈들이 8일 오후 전북 군산시 새만금 지구에서 열린 새만금 산단 3·7공구 착공식에서 시삽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고 관계기관과 일괄방향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의 적극행정으로 착공 시기를 약 1년 앞당겼다. 3·7공구의 매립면적은 총 3.81km<sup>2</sup>에 달하며 각각 2024년 10월과 11월에 매립을 완료해 2025년 상반기부터는 입주기업이 공장 설계를 위해 측량 등을 할 수 있도록 용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착공식 후 새만금청, 전북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 도레이첨단소재, 성일하이텍 등이 참석하는 기업간담회를 주재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 현황과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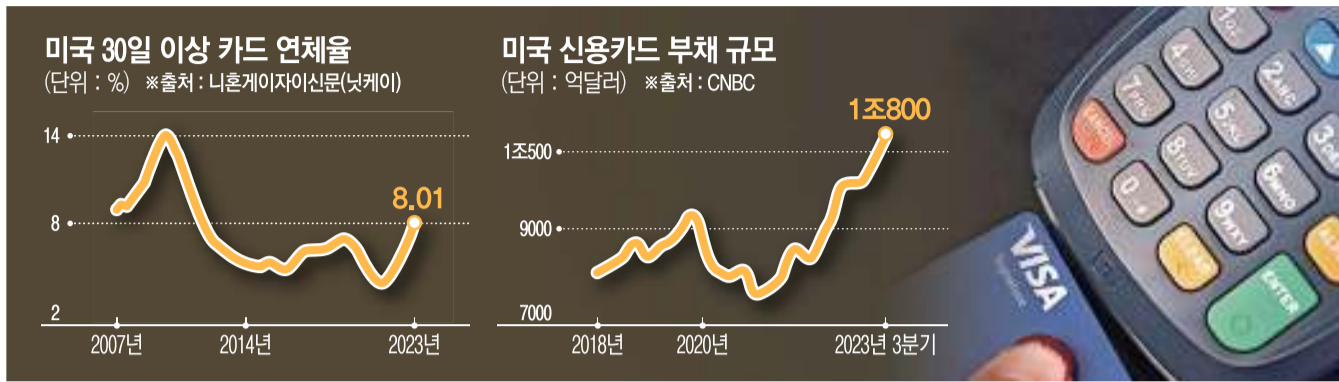
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도로와 전력 공급시설 등 기반 시설 조기 구축, 탄소배출저감에 따른 혜택 제공 등 무탄소 경영 지원 강화와 같이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는 여러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정부는 기업의 의견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을 위한 국회와의 예산 협의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청에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보강을 적극 검토하고 기업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총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번 새만금 국가산단 조기매립, 투자기업 현장견학 등 앞으로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들도 혁신적이고 도전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카드 빚 최대인데... '추가금리 인상' 군불 때는 美연준

3분기 카드 빚 규모 8년째 증가  
신규 연체율 8%... 12년來 최고  
소비 위축發 경제성장 둔화 우려  
“인플레이와 전쟁 아직 승리 못해”



미국의 3분기카드빚이역대최대를 기록했고, 연체율도 덩달아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런데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은 최근 잇따라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위한 군불을 때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인의 3분기 카드 빚 규모가 전 분기 대비 4.6% 늘어난 1조800억 달러(약 1409조832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8년 연속 증가한 것이자, 2003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이래 사상 최대치다.

신용카드잔액이큰폭으로불어나면서 연체율도 덩달아 높아졌다. 30일 이상 신용카드 대금을 치르지 못한 신규 연체율은 3분기에 8.01%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최고치다. 90일 이상 신규 연체된 비율도 5.78%로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는 고금리·고물가에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개인 소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때 쌓인 과잉 저축을 바탕으로 견실한 흐름을 이

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팬데믹 머니’가 서서히 고갈됐다. 이들은 일상적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높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카드 빚 급증과 치솟는 연체율이 신용카드 연 이자율이 최근 20.7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대출(오토론) 연체율도 사상 최고 수준이다. 미국 서브프라임(낮은 신용도의 비우량 대출자) 오토론 만기가

60일 이상 연체된 비율이 9월 6.11%로 조사가 시작된 199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미국 경제성장을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진다.

이미 기업들은 소비 약화 조짐을 감지한 상태. 전미소매협회(NRF)는 올해 11~12월 소맷 시즌 소매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증가율은 2019년 이

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소매 체인 타깃의 브라이언 코넬 최고경영자(CEO)는 “재량소비재뿐만 아니라 식료품 분야에서도 구매를 자제하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수요 부진’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여전히 연준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닐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당국은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긴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역시 “9월부터 미국 국제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 여건이 긴축됐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억제에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 글로벌 최대 채권 국가로 변신한 중

세계 최대 채권국 중국이 채권 중심국으로 돌변했다. 경제위기 속에 중국이 내민 손을 덥석 잡았던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1000조원이 훌쩍 넘는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7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앤드매리대 연구소에 이데이터를 인용해 개도국들이 중국 대출기관에 최소 1조1000억 달러(약 1436조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에이데이터가 중국으로부터 20년 넘게 자금을 빌린 165개국을 분석한 결과 현재 개도국에 대한 중국의 공식 대출의 55%가 상환 기간에 돌입했다. 게다가 중국 대출 포트폴리오의 약 80%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개도국 몫으로, 연체된 상환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데이터의 브래드 파스 상무이사는 “대출 상당수는 2013년부터 시작한 일대일로 기간 발행됐다”며 “이들에겐 5~7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엔 2년이 추

개도국, 중서 최소 1.1兆달러 차입  
공식 대출의 55% 상환기간 돌입  
포트폴리오 80%가 국가 재정난

“비싼 신디케이트론 전환 유의를”

가로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중국은 10여 년간 세계 최대 공식 채권국이었고 이전 세계 최대 공식 채권 추심국으로서 전환점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데이터는 2008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들과는 되도록 마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중국과 거래하는 국가 중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곳은 10개국 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대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중국은 사업 명목으로 개도국에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빌려줬다. 라틴아메리카에서부터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가가 도로와 공항, 철도, 발전소 등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국 자금을 활용

했다. ‘부채의 함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중국과 개도국들의 경제협력은 가속했다. 그 결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 중 중국에 대한 채권을 갚지 못한 곳은 2021년 최소 57개국으로 늘어났다.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개도국들은 높은 금리와 자국 통화 가치 하락, 글로벌 경기둔화 속에 부채를 서둘러 갚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출 규모와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향후 미상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방 은행이나 다자간 기관들이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으로 대출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개도국에 대한 긴급 대출을 제외한 포트폴리오 절반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이를 일대일로의 새로운 단계라고 칭했다.

에이데이터는 “이미 부채가 있고 중국으로부터 긴급 대출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들은 저렴한 부채를 더 비싼 부채로 바꾸는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美 ‘낙태권 보장’ 주민투표 통과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7일(현지시간) 낙태권을 보장하는 주헌법 개헌안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되자 낙태권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오하이오주는 최근 두 차례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이겼던 곳이다. 이에 내년 대선에서 집권 민주당이 낙태권 보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기뻐했다. 콜럼버스(미국)/AFP연합뉴스

## 美 “가자 재점령 반대” 천명에도... 시가전 공식화한 이스라엘

인도적 목적·교전 중단 두고 이견  
네타냐후 “하마스 의도 신뢰 안해”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인도적 목적을 위한 사흘간의 교전 중단을 다시 촉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예 시가전 개시를 공식화해 양국의 갈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재점령하는 것이 이스라엘 국가와 국민에게 좋지

않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후 가자지구에서 무기한 전반적인 안보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한 다음 날 공개됐다.

커지 조정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우방국이라고 해서 단어 하나하나, 뉘앙스 하나하나에 전부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성향에 있어 항상 모든 현안에서 같은 위치에서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인도적 목적의 교전 중단을 두고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

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의 통화에서 인질 석방을 위해 사흘간 교전 중단을 제안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하마스의 의도를 신뢰하지 않으며, 그들이 인질 관련 협의를 할 준비가 됐다고도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TV 연설에서 “가자시티는 포위됐다”며 “우리는 매일 매시간 하마스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우리 군이 가자시티 중심부까지 진격해 올라가기를 조이고 있다”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 바이든-시진핑, 15일 샌프란시스코서 만난다

APEC 계기 정상회담 일정 조율 돌입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을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8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는 11~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 정상회담을 15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미국과 중국 정상 사이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마지막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양국의 관계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무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6월과

7월 중국을 방문해 중국 고위급 관리와 회담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도 지난달 말 미국을 찾아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만찬에 주빈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재계가 주최하는 만찬에 수백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중국이 현지 직원을 체포하는 등 외국계 기업들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기업 경영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방미 일정에서 시 주석의 최우선 과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6일 핵무기 통제와 관련한 회담을 진행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 잘나가는 삼성D...애플서 中업체까지 OLED 영토 확장

## 4분기 실적 장밋빛 전망

수요 둔화로 불황에 시달리던 삼성디스플레이가 3분기에 이어 4분기도 호실적을 이어갈 전망이다. '큰손'인 애플을 비롯해, 중국 비보와 구글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 고부가가치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급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덕분이다.

8일 분기 취재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업체 비보가 전날 공개한 'iQOO12프로'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신 OLED 패널이 탑재됐다. 갤럭시S23에도 적용됐던 패널인데, 신규 OLED 재료인 E7을 탑재한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비보를 비롯해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공고한

비보 플래그십 'iQOO12프로'

E7 기반 OLED 패널 탑재돼 구글 최신 스마트폰 '픽셀8'도

삼성디스플레이 고부가 전략 4분기 영업익 2兆 신기록 기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비보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롤러블(돌돌 말리는) 폰 개발에도 나서고 있는데, 상용화를 위해 중국 CSTO, 삼성디스플레이 등 두 곳과 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구글이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픽셀8'에도 삼성디스플레이의 E7 OLED 패널이 탑재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신 OLED 패널을 탑재한 비보 'iQOO12프로'. 사진제공 비보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IT 용 고부가가치 OLED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것

으로 풀이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 아이폰에도 고부가 OLED 탑재를 늘리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15 시리즈 전 모델에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데, 아이폰15프로·프로맥스에는 단가가 비싼 LTPO(저온다결정산화물) OLED가 탑재된다.

이에 힘입어 삼성디스플레이는 3분기 영업익 1조9400억 원을 기록하며, 올해 처음으로 분기 영업익이 1조 원을 넘겼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23.6%에 달했다. 이 같은 영업이익률은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다.

아이폰15 판매도 순항 중이다. 시장조사 업체 디스플레이서플라이체인컨설턴트(DSCC)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아이폰15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은 아이폰

14 출시 이후와 비교해 24% 증가했다. 올해 9월 기준 아이폰15 패널 공급 점유율은 삼성디스플레이가 74%, 나머지 26%를 LG디스플레이가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삼성디스플레이가 4분기를 3분기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디스플레이 4분기 영업익은 2조 원을 상회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전망된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도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OLED가 최초로 탑재된 애플 태블릿 PC 출시다. 4000만~5000만 대 중 1000만 대 가량에 OLED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물량 중 삼성디스플레이는 400만 대 가량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록 기자 syr@

## '전동화 순항' 현대모비스, 투자금 1.2兆 확보

해외 금융기관 7곳서 '그린론' 전기차 시장 확대 선제 대응

현대모비스가 북미 지역 전동화 투자 자금을 확보하며 전동화 사업에 힘을 받게 됐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해외 금융기관 7곳을 대상으로 북미 전동화 신규 거점 구축을 위한 투자자금 9억4000만 달러(약 1조2270억 원)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와 시장 금리 상승 등 여의치 않은 상황에도 글로벌 전동화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한 높은 평가로 저금리, 장기 차입(만기 10년)에 성공했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 보증이 더해져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

특히 이번 자금 조달은 현대모비스의 해외 첫 '그린론(Green Loan)'이다. 그린론은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 용도로 자금을 조달하

구분	지역	생산제품	
국내	운영 중	울산·충주·대구 등	배터리시스템(BSA)·PE시스템
	구축 중	동충주	배터리시스템(BSA)
해외	운영 중	중국·체코 등	배터리시스템(BSA)
	구축 중	미국·인도네시아	배터리시스템(BSA)·PE시스템

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21년 국내에서 친환경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한 바 있지만, 해외에서 친환경 사업 투자를 위해 그린론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은 처음이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그린론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유리한 금리 조건이 가능하고,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10월 북미 전동화 신규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13억 달러(약 1조7000억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국

앨라배마와 조지아 등 4곳에 배터리시스템(BSA)과 PE시스템(전기차 구동장치) 신규 공장을 지어 글로벌 전동화 시장 확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투자 자금 조달로 북미 지역 전동화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전 세계 9곳(국내 6, 해외 3)에서 전동화 생산 거점을 운영 중이며 국내와 북미·인도네시아 등 6곳의 전동화 생산 거점을 구축 중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현대모비스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동화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2mj@



송호준(왼쪽) 에코프로 대표와 허계화 GEM 회장이 니켈 제련소 QMB 2기 투자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에코프로

## "니켈 자립도 강화" 에코프로,印尼에 추가투자

니켈 제련소 QMB 2기 8600만弗

에코프로가 니켈 확보를 위한 지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중국 GEM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니켈 제련소 'QMB' 2기 투자를 위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지난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GEM 허계화 회장과 만나 QMB 2기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QMB는 중국 GEM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다. 슬라웨시주의 모로왈리 산업단지(IMIP)에 위치해 있다. QMB는 현재 니켈 금속 기준 연 3만 톤(t)의 니켈중간재(MHP)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2기 확장을 통해 니켈 금속 기준 생산용량이 총 연 5만 톤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에코프로는 QMB 1기 투자로

지분 약 9%를 취득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6000톤 가량의 니켈 공급을 확보받았다. 8월에는 400톤의 니켈이 포함항을 통해 처음으로 반입돼 해외 니켈 원료 투자의 첫 결실을 맺기도 했다. 이번 2기 투자로 에코프로는 QMB에 총 860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되며 공급받는 니켈 물량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QMB에서 공급받은 니켈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차전지용 전구체 원료인 황산니켈로 전환한 뒤 전구체로 제조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이엠 등 양극재 생산 가족사에 공급한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이엠은 니켈 비중이 90%가 넘는 하이니켈 소재를 생산한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이사는 "원료 투자 확대를 통해 사업 수익성 증가와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구축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oporlune@

## LS머트리얼즈, 日무인로봇 업체에 '차세대 전지' UC 공급

별도 충전 없이 24시간 장비 가동 전기 사용 줄여 RE100 달성 기여

LS머트리얼즈가 일본 무인운반로봇(AGV·Automated Guided Vehicle) 제조업체에 울트라커패시터(UC)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차세대 이차전지'로 불리는 UC는 고속충·방전과 긴 수명이 장점인 산업용 특수 배터리다. 일본 업체가 클린룸의 부품 운반용 AGV에 적용해 대만 반도체 공장에 공급한다.

UC의 급속 충전 기능을 활용하면 AGV가 작동 중 실시간 충전된다. 별도의 충전 시간이 필요 없이 24시간 장비를 가동할 수 있으며, 전력 회생도 가능해져 전기 사용량을 줄이게 된다.

회사는 "대만 유수의 반도체 업체가 신규 공장을 건설하면서 전기 비용 절감과 RE100달성 등을 위해 UC를 활용한 AGV



LS머트리얼즈 작업이 울트라커패시터(UC)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제공 LS머트리얼즈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는 "이미 미국 아마존과 월마트 등의 물류센터 AGV에 사용, 기술력을 검증받았다"며 "고령화, 노동인구감소 등으로 AGV를 필두로 로봇틱스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마케팅을 확대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LS머트리얼즈는 대형 UC 부분 세계 1위로, 10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UC는 AGV와 풍력발전기, ESS,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서 1차전지와 리튬이온배터리(LIB)를 빠르게 대체, 보완해 나가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 두산밥캣, 멕시코에 신공장... "북미 수요 대응"

몬테레이까지 8개국 생산거점

두산밥캣이 북미 시장의 건설장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에 새로운 생산거점을 구축한다.

두산밥캣은 8일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 지역에 약 4000억 원(3억 달러)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다.

두산밥캣 몬테레이 신공장은 약 6만5000㎡ 규모로 두산밥캣의 대표제품인 'M-시리즈' 로더를 생산해 북미 지역에 공급하게 된다. 신공장은 2026년 초 준공해 가동

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장 수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몬테레이 신공장을 통해 두산밥캣은 기존 한국, 미국, 체코, 프랑스, 독일, 인도, 중국에 이어 멕시코까지 8개국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하게 됐다.

스카프 두산밥캣 부회장은 "최근 5년간 가파른 성장을 통해 회사의 외형이 2배로 커지면서 제품 수요가 지속 증가해 왔다"며 "새로운 거점 구축으로 인한 생산 역량 확대는 추가적인 장기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청년, 더 어깨 펴 힘

우리 자영업자, 더 오래 걸을 힘

우리 소상공인, 더 날개 돋칠 힘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에게  
우리은행이 힘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 금리 최대 1%p 감면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

1년간 연체이자 납입액 원금상환지원(소상공인 포함)  
성실상환고객 대상 서민금융 상품 원금 1% 감면  
시니어/소상공인을 위한 사회공헌 특화점포 신설

청년도약 패키지 출시  
가계대출 전 상품 금리 인하  
노령층 전 체널(비대면, 창구, ATM) 수수료 면제

우리은행

※ 금융상품 관련 계약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해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평일 9시~1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로 문의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9159(2023.11.08~2024.11.07)

# ‘렌탈 투톱’ 코웨이·SK매직, 3분기도 견조한 성장세

## 코웨이, 두번째 조단위 매출

3분기 누적 작년보다 3% 늘어

‘비렉스’ 신성장동력 자리매김

## SK매직, 영업이익 작년비 147% ↑

전분기보단 매출·영업익 감소

누적 렌탈계정 수 259만 돌파

국내 소형가전 렌탈 양강인 코웨이와 SK매직의 실적이나란히 성장했다. 코웨이는 2분기 연속 조 단위 매출을 보이며 연 4조 매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SK매직은 해외 시장 안정화 등이 실적 성장세를 떠받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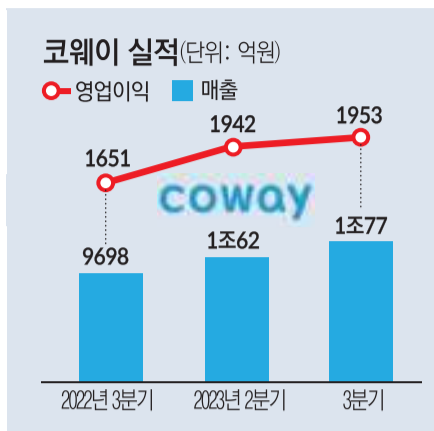
8일 코웨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액은 1조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직전분기 1조62억 원에 이어 두 번째 조 단위 매출이다. 영업이익은 19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확대됐다. 이에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작

년 같은 기간보다 3% 증가한 2조9621억 원, 영업이익은 10.0% 증가한 5651억 원을 올렸다.

국내 환경가전 사업은 총 601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5.2% 증가한 수치다. 국내에선 정수기 등 기간 코웨이의 실적을 이끌어온 주요 제품과 지난해 출시된 비렉스 제품군이 실적을 견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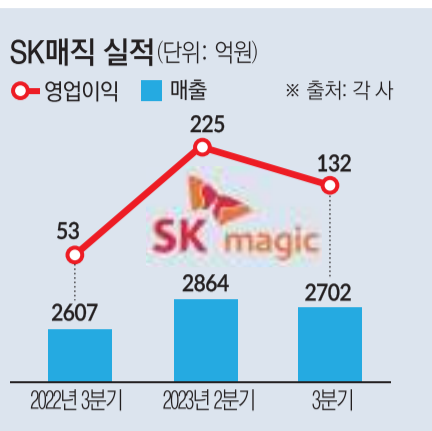
앞서 코웨이는 연말 매트리스 및 안마 의자 브랜드 비렉스를 출시한 뒤 올해 들어 비렉스 제품군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 비렉스의 대표 제품인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에 이어 안마의자, 안마베드, 침대 프레임 등이 연이어 나왔다.

해외 법인 매출액은 36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늘었다. 3분기에는 태국 법인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태국 법인 매출액은 2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0% 확대됐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2억 원으로 전년 동기(-33억) 대비 손실 규모를 축소했던 태국 법인은 이번 분



기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미국 법인 매출은 5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확대됐다. 이로써 3분기 누적 계정 수는 1012만으로 늘었다. 국내 674만, 해외가 338만으로 성장세를 이끌었다.

김순태 코웨이 CFO는 “지속해서 실행해왔던 제품 연구개발(R&D), IT, 마케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슬립&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의 성장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4분기에도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를 바탕으로 지금의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비렉스가 당사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매직의 3분기 매출은 27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확대됐다. 영업이익은 13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보다는 줄었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7.3%나 뛰었다.

SK매직의 실적 성장은 폴스텐 스파비데와 보더리스 라이트 인덕션 시리즈 등

새롭게 출시한 제품들이 호응을 얻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에는 올클린 디아트 공기청정기를 출시하는 등 신제품도 지속해서 선보였다.

해외 사업도 성장세다. SK매직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봉쇄(록다운) 조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웠던 말레이시아가 록다운이 풀리면서 안정화 되고, 최근 월 1만 계정 이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여러 기본 제품군이 골고루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글로벌 시장을 포함한 누적 렌탈 계정 수는 259만을 돌파했다. 국내, 해외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각각 241만, 18만을 기록했다.

통상 렌탈은 일시불과 달리 비용 부담이 적어 경기 불황을 타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에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업계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수요 부진 속에서도 제품군 확대와 해외 사업 강화 등을 통해 지속해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웅진씽크빅, 멀어지는 ‘매출 1조’ 꿈

웅진씽크빅이 3분기에 또다시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낸 데다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AR피디아 출시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연매출 1조원의 꿈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웅진씽크빅은 3분기에 연결기준 3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9.0% 급감했다. 매출은 2181억 원으로 6.5% 줄었고 순이익은 15억 원으로 77.7% 감소했다.

사업부별 매출을 보면 스마트올이 634억 원으로 6.3% 신장했으나 스마트씽크빅&씽크빅이 591억 원으로 -13.6%, 북클럽&슈퍼팻이 349억 원으로 -15.3% 역신장해 대체로 부진했다.

통상 3분기는 영유아와 초등학생 온라인 사교육 수요의 계절적 비수기로 꼽힌다. 상반기 온라인 사교육을 경험해보고 맞지 않는다는 판단되면 이탈하는 시기이고, 여름방학에 오프라인 사교육 수요가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계절적 비수기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분기(89억 원)와 비교하면 이익 규모가 상당히 낮아졌다. 이것 역시 코로나 해체에 따른 오프라인 사교육 특수에 대응한 결과다.

웅진씽크빅은 오프라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공부방과 학원, 학습센터 등의 오프라인 센터를 확장해왔다. 이와 관련한 임차 증가상각비와 수선비가 영업이익 감소를 불러왔다. 여기에 판촉과 광고, 용역비 등의 판관비도 늘면서 이익 감소를 키웠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는 태블릿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이 어쩔 수 없었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현재 태블릿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아이를 두고만 보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며 “이런 변화 때문에 (학습지 등) 관련 업체들이 판촉,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R피디아의 출시 차질로 실적 기여도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웅진씽크빅은 앞서 7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AR피디아 디즈니 시리즈 출시를 위한 디즈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제품은 겨울왕국 시리즈, 주토피아, 인사이드 아웃, 모아나 등 유명 디즈니 및 픽사 작품 15개를 담고 있으며, AR북 15권과 함께 리딩북 30권까지 총 45권의 도서로 구성된다. 웅진씽크빅은 연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디즈니 측에서의 검수 진행이 지연돼 내년 4월로 출시 일정이 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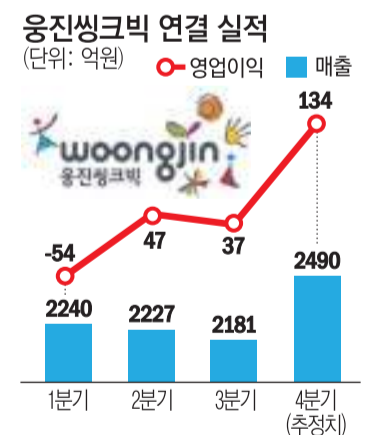
긍정적인 한가지는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스마트올의 선전이다. 올해 들어 등락은 있으나 스마트올은 22만 회원을 유지하면서 1~3분기 각각 637억 원,

623억 원, 634억 원의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웅진씽크빅은 초등 연령에 이어 유아와 중등까지 관리형 모델을 오픈해 전 연령대 관리 프로그램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웅진씽크빅의 어닝 쇼크가 계속되면서 연매출 1조 원 달성에 대한 기대치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웅진씽크빅은 지난해 연결기준 9333억 원의 매출과 27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증권가는 올해 상반기에 연매출을 1조23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하반기 들어 9000억 원대 후반으로 낮춰지며 최근에는 9500억 원 아래로 눈높이를 더 낮췄다.

조남호 기자 spdran@

### 3분기 어닝쇼크 수준 실적 매출 기대 ‘AR피디아’도 내년 4월로 출시 미뤄져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안전 유의바랍니다

#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소비자 선택권 대폭 확대”

## 과기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앞으로 단말기 상관없이 5G 요금제나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또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 원대로 낮아진다. 이어 80만 원 이하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진다.

이종호 과학교육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없애고, 통신사의 3만 원대 5G 요금제와 제조사의 80만 원대 이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전 반을 낮춘다는 의도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잡기용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5G 가입자 유입이 정체된 상황에서 통신사만 압박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현재 4만 원대 후반인 최저 구간 5G 요금을 3

30만~80만원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 ‘30GB 이하’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청년요금제·중도 해지 위약금 완화도

일각 “총선 앞두고 민심잡기용 정책 5G 시장 성장 후퇴” 우려의 목소리

만 원대로 하향하기로 했다. 또 현재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에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30기가바이트(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더 잘게 쪼갤 계획이다.

특히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조치도 이달 내로 차례로 없애기로 했다. 이통 3사는 2020년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기로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해왔다. 이달부터 차례로 5G 단말기 이용

## 통신비 부담 완화 발표 주요 내용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지 확대, 이달 순차적 시행 - 5G 단말기 이용자 LTE 요금제 가입, LTE 단말기 이용자 5G 요금제 가입 가능
5G 요금제 개편	- 4만원대 중후반인 최저구간 5G 요금 3만원대로 하향 -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저가 5G 요금제+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 일반 요금제 대비 데이터 제공량 두 배 늘린 ‘청년 5G 요금제’ 내년 1분기내 신설 - 알뜰폰에서도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되도록 유도 -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 출시
선택약정 할인제도 개선	- 2년 중심인 선택약정, 1년 단위로 자동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기능 도입
시장 과점구조 개선	- 제4이동통신사 진입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재산정·지역할당 허용



자는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데이터를 소량(30GB 이하) 이용하는 3만~4만 원대 저가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의 최대 두 배로 확대하고, 로밍 할인이나 커피·영화 쿠폰 등의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 중 신설하기로 했다.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협의해 연내 30만~80만 원대 단말기를 연내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각각 내놓기로 했다.

이 장관은 “(요금제가) 4만 원대 중후반에서 3만 원대로 내려온다는 것은 액수 측면에서 보면 작은 것이 아니다”면서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해 국

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민심잡기를 위한 전략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와 관련해 타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었고,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서민 밀착형’ 정책 등을 언급해왔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통신 3사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5G가 LTE에 비해 수익성이 좋는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풀게 되면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5G 스마트폰 이용자의 LTE 요금제가 가입이 허용되면 5G 시장 성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 압박이 계속되면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면서 “통신비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하면 6G와 같은 다음 세대 기술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로봇-사람 협업 ‘미래형 IDC’ ... “업무효율 높은 첨단기술의 심장”

## 가보니

###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업무를 마친 직원이 키오스크로 자율주행 셔틀을 알트비를 호출하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한다. 알트비는 직원을 태우고 축구장 41개 크기인 29만4000㎡(제곱미터) 부지를 누빈다. IT 창고에서는 가로, 세로 로봇이 협업해 서버를 적재하고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은 일절 없다.

SF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니다. 6일 방문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의 현장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각 세종을 “현재가 아닌 10년 그 이상의 미래를 보고 부지와 건물 그 안에 들어가는 인프라 운영 기술 노하우까지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6500억 원을

축구장 41배 크기...6500억 투입 서버 적재 등 단순노동은 로봇이 직원들은 서비스 점검·관제 업무 미래 산업현장의 레퍼런스 제시 화재·지진·정전 대비시스템 갖춰

투입한 각 세종과 각 춘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이버 제2사옥인 네이버 1784에서 적용된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첨단 기술의 심장 역할을 맡은 각 세종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AI)이 협업하며 공존하고 있었다. 고중량 서버를 운반하는 가로의 디스플레이에는 ‘세로가 자산을 신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3.2m 높이의 세로는 2mm 단위로 자산을 정확하게 꺼내 안

전하게 적재해 가로에게 전달한다. 이 과정은 마치 우주정거장에 우주선이 도킹을 시도하는 장면을 연상케 했다.

로봇이 단순, 반복 업무를 도맡은 대신 직원들은 데이터센터의 눈이자 두뇌 역할을 하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는지 점검하고 관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김재필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엔지니어링 리더는 “데이터센터를 처음 만들 때부터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도록 설계했다”며 로봇을 활용해서 업무효율을 30~50% 높이고 업무 시간을 20~30%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1784가 스마트 오피스의 기준을 제시했다면 각 세종은 미래 산업현장의 레퍼런스를 제시해 데이터센터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립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줬다. 하이퍼로보X를 비롯

해 네이버 첨단 기술의 심장 역할을 하는 AI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실은 들어서자마자 ‘웨일’ 하는 굉음이 끊임없이 들렸다. 서버실 양쪽으로 열기를 배출하는 팬에서 나오는 소리다. 김 리더는 “네이버는 높은 연산 처리에 최적화된 GPU를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AI 시대의 도래에 맞춰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각 세종을 설계했다”며 “1단계로 오픈한 각 세종의 서버동인 ‘복관’은 데이터 증가 속도에 맞춰 총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가동될 계획이고 복관이 빠르게 잘 경우를 대비해 2단계 서버동 구축 예정 부지도 미리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화재, 지진, 정전, 사이버 테러, 자연재해 등에도 서비스 중단 없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김 리더는 “한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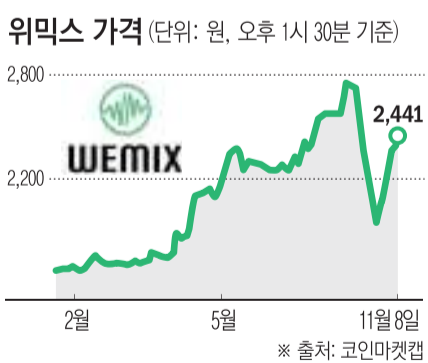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내에서 자산관리 자동화 로봇 세로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네이버

회선이 끊기더라도 다른 데이터센터에서 서비스가 이중화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춘천과 수도권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세종, 부산, 대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독일, 동남아 등 글로벌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나리 기자 nari34@

# 1년 만에 상폐 전 가격 회복한 위믹스... 들쭉이는 ‘K-코인’

2400원대... 일주일새 14% 올라 블록체인 플랫폼 확대 노력 주효 같은 기간 페이코인도 17% 급등



비트코인과 함께 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위믹스 등 김치코인의 가격도 들쭉거리고 있다. 위믹스는 닷사 상장 폐지 직전 가격을 회복했고, 페이코인은 일주일새 16.81% 상승했다.

8일 가상자산 시장 플랫폼 코인마켓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위믹스의 가격은 2441원으로 일주일 전 대비 14.43% 상승했다. 위믹스는 지난해 11월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폐되기 직전 가격 2100원대를 이미 넘어섰다. 상폐 직전 당시 위믹스 2118원이었던 위믹스 가격은 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DAXA)의 발표 직후 495원까지 급락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불어온 훈

풍과 함께 플랫폼의 꾸준한 몸집 불리기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위믹스 재단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과 디앱을 연결하는 오픈체인 ‘우나기’, NFT 옥션 서비스 ‘드롭스(Drops)’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생태계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고팍스는 이날 위믹스를 신규 상장하기도 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날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 2년간 다사다난했고

내외적으로 고난과 도전이 많았다”면서 “블록체인 플랫폼 분야도 마찬가지다. 불연속적인 혁신이 있고 사업 초기라 그동안 어렵다움이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뚜렷한 성장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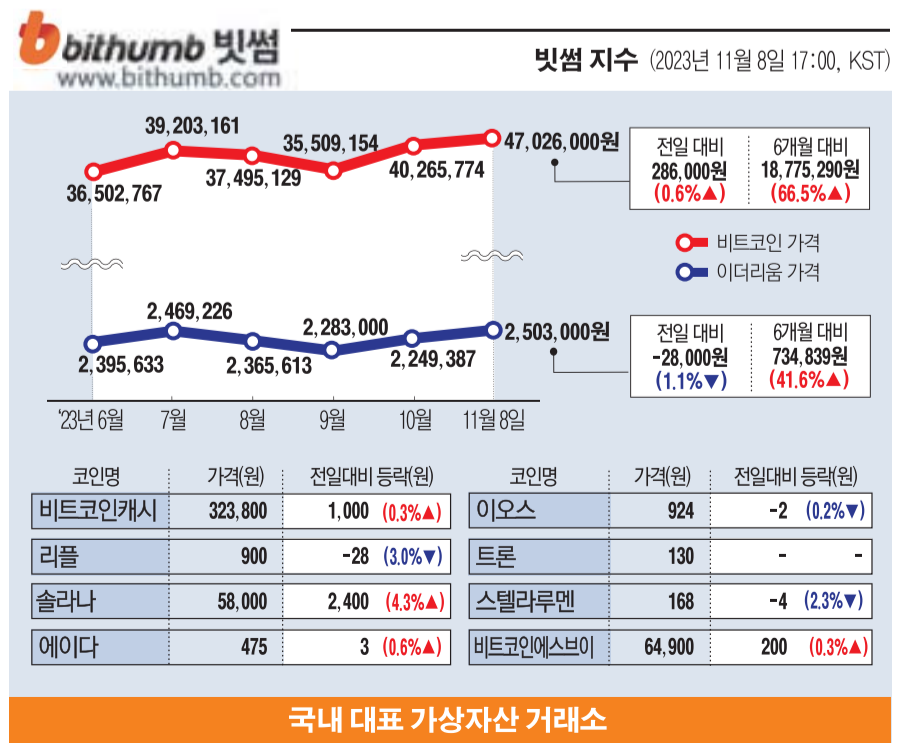
이달 상승세를 탄 김치코인은 위믹스 뿐만이 아니다. 코인마켓랩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이날 오후 1시 30분 43.1원으로 일주일 전 대비 14.43% 올랐다. 페이코인은 지난 3주간 30원대를 줄곧 횡보하다가 7일 54.08원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 카카오톡 사법 리스크 등으로 곤두박질 쳤던 클레이튼 같은 시각 185.57원으로 일주일 전 대비 8%가량 올랐다.

하지만 이들 김치코인 모두 전성기 가격을 회복하려면 한참이다. 코인마켓랩에 따르면 위믹스의 최고가는 2021년 11월 22일 3만 2188원이었다. 페이코인은

2021년 2월 5400원을 넘겼지만, 올해 4월 19일 상폐 직후 가격이 100원 아래로 가격이 내려갔다. 페이코인은 현재 상폐 직전 가격인 364원은 커녕 100원의 벽도

넘지 못하고 있다. 클레이튼 역시 2021년 2월 최고가가 5700원이었지만, 현재 1년 넘게 300원 아래에 머물러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 “금리 올려라...내려라” 춤추는 금융정책에 은행권 ‘속얹이’

##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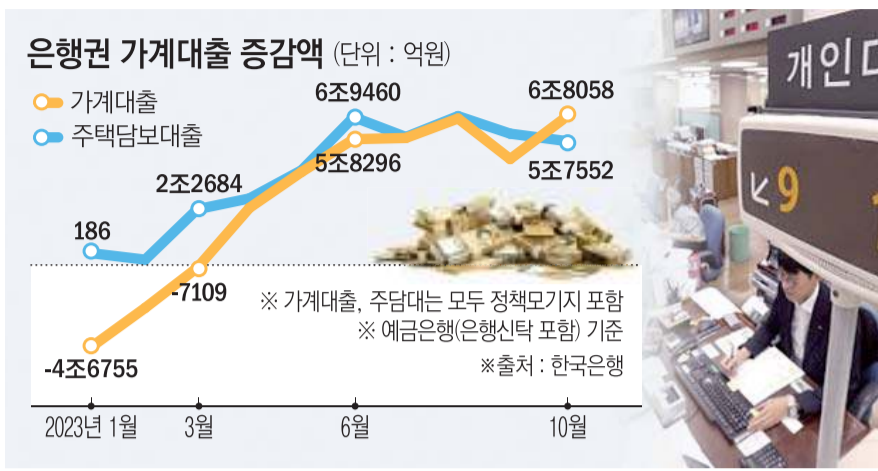
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 수단으로 꼽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더욱 넓히고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 은행을 밀착관리하기로 한 것은 가계부채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오히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폭은 2년여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잇따른 가계부채 증가 경고에도 약발이 전혀 먹이지 않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금리 개입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을 겨냥한 날선 비판 이후 상생금융 압박에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가계대출 감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도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86조6000억 원으로 한달 새 6조8000억 원 증가했다.

가계부채 6.8조 늘어 7개월째 증가 정부 잇단 경고에도 약발 안먹혀 정책 엇박자도 증가세 한 요인 은행권 “성급한 대책 혼선 우려” 금융위는 “과거보다 안정적 관리”

전달(4조8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2조 원 넘게 확대됐다. 7개월 연속 증가다. 4월 2조3000억 원 늘어난 이후 5월 4조2000억 원, 6월 5조8000억 원, 7월 5조9000억 원, 8월 6조9000억 원 등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9월 소폭 감소했다가 한달 만에 증가전환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3000억 원 순증했다. 9월(2조4000억 원)보다 순증액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폭이 25개월 만에 최대치



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가팔라진 이유를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찾는 시각이 많다. 가계대출을 잡겠다고 금리에 개입하는 등 시장 질서를 파괴하면서 생긴 혼란이라는 지적이다. 콘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한은과 금융당국 간 정책 엇박자도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은 연초부터 가계부채를 잡아야 한다며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고금리 정책을 펼쳤다. 반면 최근 금융당

국은 이자 장사를 지적하면서 ‘상생금융’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이에 은행들은 주택대와 신용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50년 주택대 상품을 두고 벌여졌던 험프닝도 오락가락 정책을 대변한다. 애초에 차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상품 만기를 50년까지 확대했고, 은행들도 이에 합류했다. 하지만 가계대출이 늘자 50년 주택대 상품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결국 50년 주택대는 모습을 감췄다.

정부는 연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상생금융 시즌2를 준비하라며 은행권을 압박하는 등 정책 엇박자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락가락 금융정책에 은행권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DSR 강화 등의 조치는 필요하나 과도하고 성급한 대책은 실수요자들의 피해와 금융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Q&A 자료집까지 배포하며 “과거 어느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과거 10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이 6.6%에 달하는 것에 비해 현 정부 들어서는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범근 기자 nova@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증가율(%)
순이익	784 (2025)	954 (2793)	21.2 (37.9)
영업수익	4118	6566	59.4
이자수익	3372	5359	58.9
비이자수익	746	1207	61.8
영업비용	2706	4551	68.2
영업이익	1046	1275	21.9



## 3분기 누적순익 2800억 ‘역대 최대’ 카카오뱅크 “대주주 리스크 없다”

3분기에만 순익 21%↑ 954억 중·저신용대출 잔액 8539억 증가 비중도 28.7%로 역대 최대 수준 “신용카드 등 신사업 계속 추진”

카카오뱅크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주주 ‘카카오 리스크’에 대해 영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주주 사법 리스크로 제동이 걸린 신사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8일 카뱅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대주주 변경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영업 우려나 걱정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 주가 조작 혐의로 카카오 경영진 일부와 카카오, 카카오엔터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자회사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김 COO는 “카카오뱅크는 비즈니스를 개시한 시작부터 카카오와 별도의 법인으로 지속 성장해왔다”며 “카톡 뿐 아니라 시장 내 다양한 플레이어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제휴를 맺을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규제로 신용카드와 마이데이터

등 신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 제약이 없는 신규 라이선스 검토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김 COO는 “현재 거론된(신용카드·마이데이터) 라이선스는 시간의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취득 가능한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공급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대한대출 플랫폼 출시에 시기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협조해 결정하겠다고 며 중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누적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써냈다. 카카오뱅크가 발표한 3분기 누적 순익은 2793억 원. 이는 전년 동기(2025억 원)보다 37.9%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다. 3분기에만 954억 원의 순이익을 내 전년 동기 787억 원보다 21.2% 늘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75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2674억 원)보다 40.5% 증가했다. 순익이 급증한 것은 올해 다른 행보다 낮은 금리를 내세워 대출 자산을 늘린 영향이 크다.

중·저신용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3조2414억 원에서 4조953억 원으로 8539억 원(26.3%) 증가했다. 가계신용대출 대비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28.7%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목표치는 30.0%다. 고객 수는 지난해 3분기 대비 약 250만 명 증가한 2228만 명으로 집계됐다

김범근 기자 nova@

## 쏟아지는 민원에 처리 지연... 소비자 불만 ‘폭발’ ‘한국형 민원대행 기관’ 나올까

금융감독원이 한국형 민원대행업체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 운영이 불법인 민원대행업체의 제도권 편입 시 영향에 대한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간 상태로 결과에 따라 찬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원대행업체의 제도적 수렴방안에 관한 연구’와 관련,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금융연구원은 12월 중순까지 결과를 낼 계획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민원대행업체는 주요국에서도 영국만 유일하게 합법적이고 미국과 일본 모두 불법”이라며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에 적용했을 때의 시사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민원대행업체 도입을 고민하는 것은 급증하는 금융 민원과 길어지는 처리 기간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다. 소비자 민원은 해마다 증가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173건) 늘었다. 이 기간 신용카드사 등 중소서민 업권에서 가장 크

금감원 ‘제도편입’ 연구용역 의뢰 ‘생명·손해보험회로 이관’ 국회 논의 불법 ‘민원대행’ 부작용 재연 우려도

게 증가했고 은행과 손해보험 업권에서도 늘었다. 쏟아지는 민원에 처리 기간도 갈수록 더뎠다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 관련 민원이 많은데,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처리 기간을 단축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 관련 민원 중에서는 모집, 질문·건의 등 단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보험 민원 및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당국의 담당 인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대신 역할을 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감원에 맡은 보험 민원 업무 일부를 보험협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를 담은 보험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금융위 입법으로 국회에 넘어갔지만 현재 계

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협회에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 중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만 맡게 된다. 단순 불만과 보험계약·보험료 정보 문의, 법령상 이첩할 수 있는 민원 등이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기존 불법 민원대행업체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부작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민원대행업체가 본인들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정당성과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19년 민원대행업체를 형사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은 A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20년 7월 서울남부지검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업체가 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올해 1월 항소심 선고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에 불복한 A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돼 변호사법 위반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불법으로 결론이 났다.

서지연 기자 sjy@

## 하나은행·카드 디지털금융 활성화... 당근·당근페이와 파트너십 체결



이승열(왼쪽 세 번째) 하나은행장과 이호성(네 번째) 하나카드 대표이사, 황도연(두 번째) 당근 대표, 안중현 당근페이 부사장이 디지털 금융 활성화와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다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은행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당근·당근페이와 디지털 금융 활성화와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다자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날 서울 서초구 소재 당근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3600만 당근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디지털 금융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들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하고 고객 중심의 생활 금융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린이들의 내일을 담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 53호 흥천시동 하나어린이집 (23년 9월말 기준 78개소 건립완료)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 “슈퍼 엔저 언제까지”... 동학·일학개미 속앓이

‘엔저 시대’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동학개미들은 하반기 국내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자동차·철강 등의 수출기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다. 연내 엔화반등에 베팅했던 ‘일학개미’들은 손실이 더 커질까 봐 속앓이하는 처지가 됐다.

8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0.32% 오른 달러당 150.74엔으로 장을 마감했다. 원·엔 재정환율(오후 3시 30분 기준)은 100엔당 869.76원을 기록했다.

엔화 가치가 계속 바닥인 이유는 미국의 통화 긴축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저성장 탈출’을 목표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자동차나 철강주에 투자한 개미들은 엔저가 걱정스럽다.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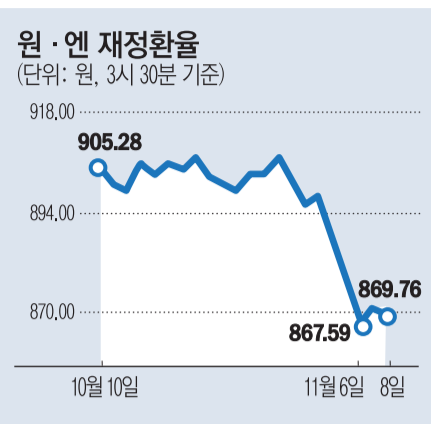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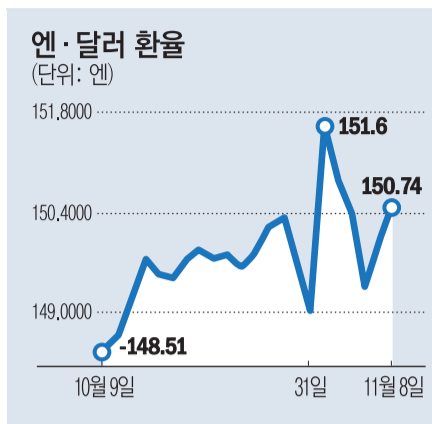
## 엔·달러 환율 150엔 시대

자동차·철강 株 수출경합 치열  
가격경쟁력 떨어져 실적 부담

일학개미 올 순매수 1위 종목  
美국채 20년물 엔화헤지 ETF  
엔저 장기화에 17.5% 하락

높아서다.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물건을 세계 시장에 판다고 할 때 엔저를 등에 업고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포인트 하락할 때 한국의 수출 물량은 0.2%포인트, 수출금액은 0.61%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기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184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1% 급감했다. 엔



화 약세로 일본 무라타 등 부품 공급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심화된 게 주원인으로 꼽힌다. 현대제철은 3분기에 연결기준으로 228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38.8% 줄었다. 엔저 영향으로 일본산 철강제품의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일 간 경제 상황을 보면 860원~870원대의 원·엔 환율은 다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인

다”면서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수요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원화 가치의 상대적 고평가 현상은 일부 한·일간 수출 경합 품목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국내 증시 전체에도 부담이다. 박 연구원은 “엔화 약세는 일본 증시의 상대적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다”라면서 “일본 증시와 한국 증시의 상대강도가 원·엔 환율 추이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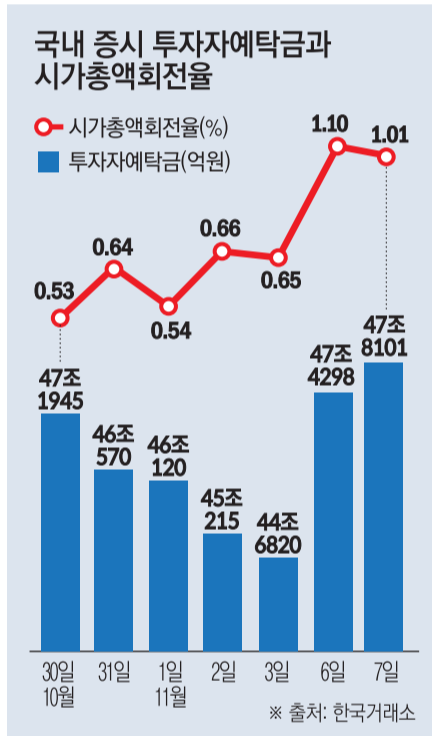
있다”고 했다. 실제 최근 토요타의 주가 수익률이 현대자동차를 앞서고 있다.

엔화반등에 베팅한 개인투자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일까지 일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주식(ETF 포함)은 ‘아이셰어즈 미국채 20년물 엔화 헤지 ETF(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JPY Hedged)’로, 순매수 금액은 3억 5367만 달러에 달한다. 엔화로 만기 20년 이상의 미국 초장기 채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데 미 국채금리 급등으로 같은 기간 -17.50%나 하락했다. 여기에 원화당 엔화값 약세에 따른 환손실까지 추가로 떠안게 됐다.

엔화 반등을 기대하며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상품은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들은 국내 유일 엔 투자 ETF인 ‘TIGER 일본 엔선물’을 올해 들어 1000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9.21%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정성욱 기자 sajikoku@·정희민 기자 hihello@



“단타 치기 좋은 장 아닙니다. 오늘 시초가에 샀으니 장 마감 전에 팔면 되죠.” “3%씩 세 번만 먹고 빠지면 치킨값은 별지 않을까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일명 ‘단타개미’가 늘어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직후 주가가 널뛰자 그 틈을 파고들어 수익을 내려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난 것이다. 하루에도 매수와 매도를 수차례 오가며 수익을 낸 개미들로 종목 토론방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심화한 증시에서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일 기준

## 공매도 금지하자 ‘단타족’ 기승

6일 금지 조치 후 예탁금 7% ‘쑥’  
공매도 비중 높은 이차전지 몰려  
시가총액회전율 2개월 만에 1%대로

투자자예탁금은 47조8101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직전(3일) 44조6820억 원까지 줄었던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7% 넘게 늘어난 것이다. 3일은 올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날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 직전까지는 테마주 광풍이 끝나며 증시 거래가 줄어드는 추세였다.

개인들이 찾은 종목은 공매도 비중이

컸던 이차전지 관련주다. 6일부터 이날까지 개미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POSCO홀딩스(3004억 원) 포스코퓨처엠(1712억 원), 기아(890억 원), 삼성SDI(841억 원), 파주(482억 원), 엘앤에프(457억 원), 포스코인터내셔널(455억 원) 등 순이다.

이 중 상당수가 단타족으로 추정된다. 이들 연속(6, 7일)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했고, 개별 종목에서 변동성안정장치(VI)가 다수 발동된 점이 이를 방증한다. VI는 주가가 급변할 때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제도다.

VI는 6일 277회, 7일 238회를 기록해 3일(197회)보다 늘어났다. 6일에는 에코프로(2회), 에코프로비엠(2회), 에코프로에이치엔(2회), 엘앤에프(2회) 외에도 포스코그룹주 모두에 각각 1회씩 발동됐다. 7일에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 엘앤에프, 포스코엠텍을 제외한 모든 포스코그룹주에 1회씩 발동됐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회전율도 1%대로 급등했다. 6일과 7일 시가총액회전율은 각각 1.10%와 1.01%다. 10월 평균 시가총액회전율은 0.65%다. 1%를 넘긴 건 8월 이후 처음이다.

손민지 기자 handmin@

## 해외자본 먹튀 방지하려면 ‘당근과 채찍’ 정책을

### 韓사냥 나선 글로벌 큰손

“한국 정부가 낸 법적 절차는 결국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이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지난 7월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 취소 소송에 대한 입장이다. 엘리엇은 “불복은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 등 강도 높은 비판도 잊지 않았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이 ISDS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손을 들어준 근거가 됐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투표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론스타 사건’의 악몽도 있다. 2003년 8월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후 9년 뒤인 2012년 하나은행에 되팔아 4조 원 넘는 수익을 챙긴 건이다. 당시 일로한동안 국내 시장에서는 PEF들의 금융사 인수가 금기시되다시피 했다.

엘리엇·론스타사태 등 큰 피해  
외자 유치 지원책 먹튀 반복돼  
아름다운 동행 위해 견제 필요

2004~2005년 소버린자산운용과 SK, 2006년 칼 아이칸-스틸파트너스와 KT&G 간 대결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적잖은 피해를 봤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적잖은 자본과 기업들은 혜택만 받고 국내 시장을 떠났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공장 부지 무상 임대, 법인세·소득세 면제, 취득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아오다 수익성 등을 이유로 폐업하는 식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예도 있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비싼 값에 해외 본사에서 부품을 사오고,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제품에는 싼 가격을 책정해 한국 자회사의 수익을 본사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르노삼성과 한

국지엠은 이전가격 조작 혐의로 2013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외국 자본이 수익성 등을 이유로 철수와 진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런 현상은 과거보다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술만 속 빼간 일도 있다. 상하이차에서 쌍용차 인수 협의 시 약속한 신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2005년 6월경 출시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SUV 자동차 ‘카이런’의 제작 기술을 헐값에 상하이차에 이전하는 계약이 맺었고, 디젤 하이브리드 제어 장치(HCU, Hybrid Control Unit) 기술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기집에서 남의 잔치를 하는 ‘윌블던 효과(Wimbledon Effect)’와 같은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외국인 자본은 기업 부문의 체질 강화와 자본시장의 역동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아름다운 동행의 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 증권가 “에코프로 팔아라”... 목표주가 줄하향

실적 부진한데 주가 높아 ‘버블’  
원가 상승 속 성장세 둔화 주목

“본질 가치를 초과한 버블의 영역에서 변동성 전투에 참전하면 벌금으로 돌아올 뿐이다.”(하나증권 ‘에코프로’ 보고서) 증권가가 2차전지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과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적에 견줘 주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가총액 1·2위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10.19%, 14.20% 하락했다.

하나증권은 지주사 에코프로의 목표주가를 55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24% 하향하고, 투자 의견 ‘매도’를 유지했다. 하나증권은 자회사들의 가치를 합산한 에코프로의 가치를 10조9000억 원으로 봤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저율의 눈금에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 내재가치를 가리킨다”며 “본질 가치를 초과한 버블의 영역에서 변동성 전투에 참전하는 것은 결국 벌금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평가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도 이날 8개 증

권사가 목표가를 평균 22% 하향조정했다. KB증권(50만 원→35만 원), 이베스트투자증권(47만 원→33만 원), 신영증권(45만 원→37만 원), 하나증권(44만6000원→33만7000원), 키움증권(44만5000원→34만 원), NH투자증권(41만 원→35만 원) 등 대부분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30만 원대로 내렸다. 메리츠증권(36만 원→29만 원)과 다올투자증권(31만 원→25만 원)은 20만 원대 목표주가를 제시했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더 비관적이다. 골드만삭스(12만 원)·UBS(12만6000원)를 비롯해 모건스탠리(22만 원), 맥쿼리(21만 원), JP모건(22만 원), 크레디트스위스(23만 원) 등은 국내 증권사보다 낮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금리 상승에 따른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 상승, 리튬가격 하락에 따른 양극재 평균판매가격(ASP) 전망 하향, 전방 시장 성장세 둔화 등을 주가 할인 요인으로 꼽고 있다.

8일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 나서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흥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약 첫날 경쟁률은 8.83대 1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5551억 원이 몰렸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커피전문점 10만개 육박... “국민음료로 자리매김”

## ☕ 커피공화국 코리아

국내 커피전문점 매장 수가 올해 10만 개에 근접할 전망이다. 외식 업종 중 한식, 치킨 다음으로 점포 수가 많은데, 창업이 비교적 쉽고 커피 수요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후죽순 생기는 커피전문점으로 인해 가격경쟁도 매년 치열해지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커지는 반면 매장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전국 커피전문점 2년 전보다 20% ↑=8일 국제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커피전문점 매장은 9만 6386개로, 2년 전인 2021년 같은 달 8만 109개에서 20.3%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 발표한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봐도 한국은 ‘커피 공화국’이다. 2019년 1만 6186개였으나, 2020년 1만 7856개, 2021년 2만 3204개로 늘었다.

8월 9.6만곳... 2년새 20% ↑ 브랜드 수 3년만에 2.5배 늘어

스타벅스 등 프리미엄 브랜드 아메리카노 4000~5000원인데 편의점은 초저가 ‘양극화’ 심화

2021년 기준 커피 가맹점 수는 한식(3만 6015개), 치킨(2만 9373개) 업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브랜드 수도 2019년 338개였으나, 2021년 736개, 지난해 852개로 급증했다.

주요 브랜드 중 최다가맹점 브랜드는 ‘이디야커피’다. 이디야커피는 4월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중 첫 3800호점을 냈다. 저가 커피 ‘메가커피’도 가맹점 증가 속도가 엄청나다. 작년 매장 수는 2204개로, 2021년 1620개보다 늘었다. ‘킴포즈커피’도 5월, 론칭 9년 만에



2000호점을 돌파했다. 커피전문점의 무서운 확장세는 다른 프랜차이즈업종에 비해 가맹비가 비교적 적게 들고 진입 장벽 또한 낮기 때문이다. 핀테크기업 핀다가 8월 공개한 ‘2023 상반기 자영업 창업 보고서’에 따르면 14개 외식 업종 중 카페 창업 예상 평균 비용은 1억 2394만 원으로 12위로, 13위 치킨·닭강정(1억 1768만 원), 14위 피자전문점(1억 306만 원)을 제외하고 최하위권이었다. 커피 수요가

꾸준한 점도 커피전문점 증가세의 요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커피 원두 수입량은 2019년 16만 7578톤에서 지난해에는 20만 2307톤으로 20% 늘었다.

◇60원 vs 5000원... 프리미엄 또는 가성비=업계에 따르면 국내 저가 커피 브랜드의 아메리카노(톨 사이즈 기준) 가격은 2000원 안팎 수준이다. 반면 프리미엄 브랜드 스타벅스, 커피빈 등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4000~5000원에 달해 저가 커피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저가 커피 대표주자인 메가커피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2000원이다.

또 다른 저가 프랜차이즈인 더벤티는 가격이 1800원, 빵다방은 역시 2000원이다. 반면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특히 비싼 편인 커피빈은 아메리카노 레귤러 사이즈가 5500원이다. 가장 저렴한 더벤티보다 무려 3700원 비싸다. 압도적인 매출 1위인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는 4500원으로 저가 대비 2500원 이상 비싸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편의점까지 커피 ‘초저가 경쟁’에 합류했다. GS25는 6월 한 달간 원두커피 ‘카페25’의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를 각종 할인에 더해 60원에 판매했다. 파리바게뜨도 9월에만 아메리카노를 990원에 특가 판매했다. 한편 질 좋은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홈카페 시장도 커지고 있다.

김지영 기자 kij42@

# “나만의 원두부터 친환경까지”... 올해 트렌드는 맞춤형 ‘스페셜티’

## 역대 최대 규모 서울카페쇼

세계 36개국 3750개 브랜드 참여 맛·질·향 모두 갖춘 다양한 원두에 ESG 카페용품도 내 손으로 골라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2회 서울카페쇼’에는 커피업계 관계자들부터 소비자까지 카페·커피 산업 트렌드를 살피기 위한 이들로 인산인해였다. 11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커피산업 전시회인 서울카페쇼는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커피 원두 산지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36개국, 675개 업체, 3750개 브랜드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서울카페쇼가 제시한 여러 트렌드 중 ‘맞춤형 경험’ 키워드에 업계와 소비자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서울카페쇼’에서 관람객들이 카페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코엑스 전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서울카페쇼는 전 세계 36개국 675개 업체, 3750개 브랜드가 참가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의 관심이 집중됐다. 기존에는 스타벅스 등 대기업 운영 카페에서 마시던 아메리카노에 익숙했다면, 이제는 개개인의 취향에 맞춘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

두를 직접 볶고 갈아 만드는 로스터리카페관인 ‘커피엘리’에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 ‘나만의 로스터리 찾기’ 프로그램이 한창이었다. 커피 마시는 빈도부터 개인별 커피성향 설문조사를

마치면, 총 73개의 로스터리카페 중 개별 맞춤형 원두와 브랜드를 추천받는다. 이후 추천받은 카페 부스로 이동, 해당 브랜드 원두 커피를 시음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어나(32) 씨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로 나만의 커피 취향을 찾아주니 신기하다”고 즐거워 했다.

전시장엔 개성 넘치는 로스터리카페 부스가 즐비했다. 특히 브라질에서 온 ‘업커피’ 부스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업커피는 올해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2023 바리스타 챔피언 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엄보람 씨와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로, 브라질 현지에서 커피 농장을 운영하며 재배·생산까지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커피 소비자들의 입맛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본인의 취향에 맞고 맛과 질, 향이 좋은 스페셜티

의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서울카페쇼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도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생분해성 소재 일회용품부터 텀블러, 식기세척 전문회사까지 친환경 역량의 자원을 겨루고 있었다. 특히 돌핀의 부스 앞에는 텀블러 세척기 시연에 이목이 집중됐다. 직원이 뚜껑과 텀블러, 빨대를 동시에 기계에 넣자 행군·세척·건조까지 45초에 끝났다. 리와인드는 빨대, 컵 등 생분해성 소재 제품을 소개했다. 무림 P&P는 100% 천연펄프로 만든 종이물티슈 ‘무해(moohae)’를 선보였다.

이밖에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 순환’은 행사 기간 배출되는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최대한 수거해 재활용한다. 커피박은 유기영양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훌륭한 바이오매스 자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문현호 기자 m2h@

## 현대백그룹 지주사 ‘현대지에프홀딩스’ 공식 출범

유통 포함 그룹내 27개 자회사 편입 2030년까지 매출 40조 달성 목표

현대백화점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 지주회사 (주)현대지에프홀딩스(HYUNDAI G.F. HOLDINGS) 출범을 통해 ‘정지선 회장·정교선 부회장-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현대그린푸드’로 이어지는 단일 지배 구조를 완성했다. 2030년까지 매출 4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비전 2030’ 달성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그룹 지주회사인 (주)현대지에프홀딩스가 공식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이날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각각 열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교선 현대백화

점그룹 부회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그룹 관계자는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현대지에프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이사회에 합류해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장호진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사장도 사내이사에 선임돼, 정 회장과 함께 현대지에프홀딩스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공개매수·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주력 계열사인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를 자회사로 편입시켜 그룹 모든 계열사를 아우르는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정 회장과 정 부회장도 현물출자에 참여해 지주회사 지분 38%와 28%를 각각 보유하게 됐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별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순

수 지주회사다. 유통을 비롯해 현대백화점그룹 내 27개 자회사를 편입했다. 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 경영 자문과 업무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한다. 단일 컨트롤 타워로서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와 투자·리스크 관리도 맡는다. 신사업 발굴과 인수·합병(M&A) 추진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단일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에도 형제인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기존처럼 각각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의 대표이사를 계속 유지한다. 장 사장도 현대백화점과 한섬 등 주력 계열사의 사내이사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주회사 출범을 계기로 주주 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유연 기자 kyy0907@

## 다나와·에누리, 생성형 AI로 ‘플랫폼 대수술’

검색엔진 구축... 내년 4~5월 선포

커넥트웨이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무기로 다나와, 에누리와 몰테일 등 자사의 플랫폼 고도화에 나선다. 개발자 출신 이견수 대표를 중심으로 1세대 이커머스의 낡은 플랫폼을 대수술하겠다는 포부다. 생성형 AI를 통한 초 개인화 검색 기능을 탑재,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가격 비교 서비스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견수 커넥트웨이브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3C(커넥트웨이브, 커머스&채인지) 생성형 AI 컨퍼런스’를 열고, 그룹 AI 전략과 함께 가격 비교 플랫폼 다나와와 에누리, 쇼핑물 제작 플랫폼 메이크샵, 해외직구 플랫폼 몰테일의 고도화 전략을 공개했다.

생성형 AI로 명명된 ‘PLAi(이하 플레이)’가 전략의 핵심이다. 플레이는 경량화된 프라이빗 거대언어모델(LLM)을 채택, 학습·추론 비용을 낮춘 상품 및 커머스에 특화된 AI다.

LLM은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로 단어, 문장, 문서 등의 자연어 데이터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다.

특히 1세대 이커머스의 낡은 플랫폼을 대수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플랫폼 기업인 만큼 개발자와 시스템에 대폭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나와와 에누리는 통합 검색엔진 구축,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통합을 통해 가격 비교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한다. 통합된 검색엔진은 내년 4~5월 선보일 예정이다. 유승호 기자 peter@

<전 대법관>

# 새 대법원장 후보 조희대... 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尹, 국회 부결 33일 만에 지명  
정년 70세, 3년 뒤 퇴임 걸림돌  
조·현재소장 후보자 'TK 출신'  
인사청문회 통과 쉽지 않을 듯  
국회 거쳐 임명까지 한달 걸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에는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크게 반영됐다.

다만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변수는 남아있다. 우선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 때문에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

한다는 점이다. 취임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 정년은 2027년 6월이다.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한 달 뒤 정년퇴임하게 되는 구조다.

또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와 같은 경북고 출신이라는 점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모두 ‘보수’ 성향이란 데 이견이 없다”며 “대법

원장과 현재소장 후보자가 전부 TK(대구·경북) 출신으로 지명되면서 지역안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측면은 야당이 다수당이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격 받을 수 있는 빌미다”라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준영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대법원장 자리가 40일 넘게 공석인데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가 10일로 코앞에 다가와

대법원과 현재 양대 사법수장 공백이 초임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미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유남석 소장 퇴임 이후인 13일로 잡혔고, 윤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 일정과 본회의 표결까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임명까지 최소 한 달은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10일 유 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라 최선임 재판관인 이은애(57·19기)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준영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 전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



“빈대 막아라” 지하철 선제 방역  
특별 살충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출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빈대 박멸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8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교통공사 용산차량기지에서 빈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연합뉴스

## “광화문 카페서 ‘개인 컵’ 사용하세요”

市 ‘에코존’ 지정... 동행 카페 모집  
스타벅스, 서울 에코매장 36개로

서울시가 광화문 일대를 플라스틱 청정 지구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8일 서울시는 도심 업무지구인 광화문역, 시청역, 을지로입구역 일대를 ‘개인 컵·다회용 컵 사용 촉진 지구(에코존)’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9월 발표한 ‘1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점차 적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1회용 컵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동행단을 30일까지 모집한다. 종로·중구 소재 카페, 사옥 및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으로, 동행단에 참여할 경우 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컵 사용의 날(음료 전액 무료 지원)’이나 ‘개인 컵 사용 추가 할인제 사업(시 300원 할인액 지원)’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은 광화문 청정지구 동행단 참여 의사를 밝혔다. 개인 컵을 사용하

는 회사 문화 조성 등 1회용 컵 감량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16일 오전 11시부터 종로구 씨티은행 본사 앞에서 ‘개인 컵 사용의 날’도 운영한다.

2022년부터 제로서울 기업실천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9일부터 서울 시내 에코매장을 36개로 확대 운영한다. 에코매장은 다회용 컵을 선택할 수 있는 곳으로, 스타벅스는 서울 시내에서 현재 13개의 에코매장을 운영 중이다.

스타벅스는 30일까지 36개 에코매장에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대상으로 다회용 컵(리유저블컵) 주문 시 스타벅스 별 1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실천)에 가입한 시민은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3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광화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로카페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1회용품 감량 홍보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로·중구 소재 카페나 회사 사옥, 다중이용시설의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매출 6조인데 적자... 스포츠토토 정상화 길 찾았다

수수료를 낮추는데 인건비 초과집행  
문체부, 운영 경비 조정안 마련  
합의로 잔여예산 인건비 활용 가능

인건비 초과 집행으로 경영적자가 누적된 스포츠토토코리아(이하 STK)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운영 경비 조정에 합의하면서 스포츠토토 운영이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8일 문체부는 “STK, 공단과 함께 스포츠토토 운영 안정화를 위한 조정안에 합의했다”며 “스포츠토토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STK는 정산 항목의 잔여 예산을 부족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인건비 증가로 생기는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문체부는 전문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사용하고 추가로 사용된 인건비는 사후 정산을 통해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 관리할 계획이다.

스포츠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으로 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사업이다. 문체부가 감독 기관이고, 공단이 발행사업자다. STK는 수탁사업자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스포츠토토 사업은 많은 기업의 ‘관심 대상’이다. 입찰에만 성공하면 안정적 수익이 확보되는 사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사업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스포츠토토 매출액은 대략 6조 원이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입찰 참여 기업들이 1% 내외의 낮은 수수료를 적어냈다. 이로 인해 사업을 떠내도 정작 수탁사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3년 전 스포츠토토 사업을 수탁받은 STK는 이미 승인받은 예산 대비 인건비를 초과 집행하면서 경영적자가 누적됐다. 이에 STK는 단축근무, 무급 휴직 등을 시행하며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업 이후 공단에 내야 하는 ‘정산 항목’이 있고, 수탁사업자가 자체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정산 항목’이 있다. 인건비는 비정산 항목”이라며 “계약상 정산 항목의 남은 비용을 비정산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영난이 이어지자 STK는 지난해 9월 “스포츠토토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스포츠토토 운영계획을 조정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정산 항목 중 집행 후 남은 비용은 인건비 등 비정산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는 게 STK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단은 수탁사의 경영적자가 유료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이 난색을 표했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문체부와 공단은 수탁사의 경영악화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권익위의 조정과 조달청·감사원의 컨설팅을 거쳐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편 공단은 STK의 수탁 기간이 끝나는 2025년에 해당 사업을 직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송석주 기자 ssp@

## “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패소

카카오벤처스 상대로 소송  
法 “주총 결의 안 받아 무효”

임지훈(사진) 전 카카오 대표가 600억 원 상당의 성과급을 달라며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598억원의 성과급을 달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과 보수는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분 44%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만,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이 건은 주총의 결의를 받은 바 없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 전 대표는 2012년~2015년 카카오벤처스에서 첫 번째 사모펀드인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등에 초기 투자를 하며 큰 이



윤을 냈고, 1조 원 이상의 가치로 상승해 지난 해 말 청산됐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였던 2015년 1월 성과급(우선 귀속분)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약정을 맺었다. 해당 약정은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기면서 같은 해 12월 보상비율을 44%로 낮추되 ‘직무수행 기간’ 배제한다는 조항으로 변경됐다.

2021년 임 전 대표는 최대 800억 원대 성과보수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카카오벤처스는 법무·세무적 이유를 들어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임 전 대표와 맺은 2차 계약이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절차상 하자がある 것이다.

이에 임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카카오벤처스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상대로 약정금 598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이현 기자 spes@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금융을 넘어 환경까지 KB증권이 함께 합니다

## CHANGE \*b OUR LIFE



### Change our life 플로깅!

'22 양양 인구해변  
'23 부산 해운대

### 개비증권 그린로드 (도심 숲) 조성!

'22 난지 캠핑장  
'23 천왕산 캠핑장

### 자원순환 및 탄소저감 시행!

'22 제주 푸른컵(공유컵) 제작  
'23 사내 폐가전 회수, 재활용

\*b KB증권

# “국어, 9월 모평과 비슷할 듯… 수학·영어 ‘실수’ 땀 치명적”

## 입시특보

### D-7 올해 수능 어떨까

국어, 모의평가 수준 난이도 예상  
변별력 위해 수학은 어려워질 듯  
난도 높던 영어, 쉽게 낼 가능성↑

“한두 문제로 당락 갈릴 수 있어  
까다로운 문제 시간 조절 중요”



6일 대구 북구 매천고등학교에서 고2 학생들이 수험생 선배를 응원하기 위한 메시지를 적어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수능능력시험은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할 때 국어는 비슷한 수준, 수학은 약간 어렵거나 비슷하게, 영어는 다소 쉽게 작년 수능 정도로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 일주일 앞두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뽑아 답하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다만 이 소장은 “수능 난이도 예측을 하

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킬러문항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준킬러문항을 가지고 얼마든지 어렵게 변별력 있게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평가원이 쉽게 출제했다 해도 수험생들이 실감하는 난이도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우선 국어의 경우 9월 모평이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돼 변별력이 있었던 만큼 이번 수능도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소장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수학과와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를 줄였다”면서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2점으로 지난해 9월 모평 대비 2점, 수능 대비 8점이 상승해 작년 9월 모평과 수능에 비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만점자 인원과 비율은 135명, 0.004%로, 작년 수능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최상위 변별

력이 상승했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지난해 9월 모평과 수능 점수보다 1점이 낮아진 반면, 1등급컷은 2점이 높아졌다. 만점자 인원과 비율은 2520명, 0.68%로, 작년 수능보다 1586명, 0.46%포인트(p) 증가해 최상위권 변별력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장은 “평가원은 수학 영역을 지난해 수능 정도나 9월 모평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영어 영역은 상위 등급 비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만큼 실제 수능에서는 9월 모평보다 다소 쉽게 난이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 영역의 난이도가 내려가고 변별력이 떨어지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증가해 정시로의 이월 인원은 줄어들 수 있다.

시험 당일 실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소장은 “시험 당일 실수는 치명적”이라며 “한두 문제로 당락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국어 영역의 경우 문제풀이 시간 안배

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 부분에 제시된 문제가 까다롭거나 지문 내용을 독해하기 어려운 경우, 맨 뒤에 한두 지문 정도는 아예 풀지도 못한 채 답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어려운 문제는 적당히 뒤로 넘기는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소장은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미루다 보면 다시 풀어야 할 문항이 많아지고 결국 시간 부족으로 문제의 정답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라며 “나중으로 미루는 문제는 두세 문제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학의 경우, 2점짜리 세 문항은 최종적으로 꼭 검산해야 한다. 검산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실수하면 너무나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꼭 검산해야 한다. 수능에서는 누구나 긴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쉬운 문항을 먼저 풀면서 긴장을 풀어야 한다.

손현경 기자 son89@

## ‘역대급 N수생’ 여파… 고3 대학진학률 2년째 감소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N수생’ 비율이 급증한 것과 맞물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전년보다 0.5%포인트(p) 하락한 72.8%로 집계됐다.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42만9910명 중 31만3012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대학 진학률은 2008년 83.8%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해 70%대에 머물고 있다.

입시업계는 대학진학자와 취업자(2만

의약학 계열 선호 커져 N수생 급증  
교육열 높은 지역·학교 재수생 늘어  
작년 대비 0.5%p 떨어진 72.8%

4678명), 입대자(2434명)를 제외한 기타 인원인 8만9786명(20.9%)을 대부분 재수생으로 추정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8만9786명은 올해 수능에 지원한 졸업생 지원자 15만974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나머지는 N수생이거나 반수생으로 추정된다”고 말

했다.

통상 대학 진학률은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률과 같은 추세를 보인다. 특성화고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많아지면 전체 대학 진학률도 오르고, 진학보다 취업이 우세인 때에는 진학률이 낮아진다. 실제로 특성화고 진학률이 2020년 44.8%에서 2021년 47.8%로 상승하면서 전체 대학 진학률도 72.5%에서 73.7%로 덩달아 올랐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소 양상이 달랐다. 지난 2년간은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는데도 전체 대학 진학률이 하락했다. 이는 최근 대입에서 의약학 계열 선호가 높아지면서 재수·반수생을 포함한 N수생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능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은 2022학년도 26.4%에서 2023학년도 28.0%로 오르는 동안 2022년 대학 진학률은 73.3%에서 2023년 72.8%로 떨어졌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과 고교일수록 대학 진학률은 더 높게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59.5%)이었다. 서울교육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이른바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반고의 대학 진학률이 각각 50.3%, 54.6%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고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의 대학 진학률이 55.9%로 가장 낮았고, 자율형사립고·자율형공립고(67.3%), 일반고(78.4%) 순이었다.

오종운 이사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고교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선호도 높은 상위권 대학을 들어가려고 해 N수생이 많은 정시에서 많이 밀려난다”며 “이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 노후가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광고 문의 (02) 799-6727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 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 “건설산업 스마트기술 필수... 선진화 앞당길 것”

국토부장관상 등 13개 건설사 선정  
유창수 “韓경제 발전 건설인이 주도”  
김상문 “혁신 준비 기업에 인센티브”

제7회 ‘2023 이투데이 스마트건설대상’이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건설대상은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환경에도 선전을 이어가고, 국내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이어간 건설업계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건설관계기관 고위 관계자까지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이희원 산업통상자원부 홍보담당관, 이경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김덕현 이투데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도 자리했다. 행사에선 주요 부처 관계자와 건설·부동산업계 종사자는 수상 기업을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이어갔다.

먼저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축사에서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선봉에 서있는 핵심산업이자 버팀목”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는 바로 건설인과 건설산업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시장은 또 “국내 건설산업은 국제 원자재값 상승과 산업 인력 부족 등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건설산업도 이런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투데이 스마트건설대상은 국내 건설기술과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업계를 장려하고 격려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이 상을 통해 산업 선진화를 앞당기고 경쟁력을 높이자”고 말했다.

이어서 축사를 맡은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스마트 건설산업 기술이 필수”라며 “정부는 7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방안을 내놨으며 300개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스마트 건설 혁신을 준비 중인 강소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장이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이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 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에서 심사평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유창수(왼쪽)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 이투데이 스마트 건설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희수 건설정책연구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참여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을 격려하고, 국내 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 김 원장은 “이번 출품작을 접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특히, 국토부장관상인 종합대상을 받은 부영주택에 대해선 “건설 안전을 경영 우선 목표로 삼아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었고, 국내 임대주택 선도기업으로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 점을 고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대상에 이어 혁신일자리부문 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주)한화건설부문이, 산업안전부문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은 자이에스앤디가 각각 수상했다. 이어서 DL이앤씨는 주거혁신부문 대상(서울특별시시장상)을, GS건설은 동반성장부문(동반성장위원장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 부문별 수상기업은 △대우건설(해외건설부문) △서울주택도시공사(건설문화혁신부문) △SK에코플랜트(신사업부문) △현대건설(주거서비스부문) △두산건설(브랜드부문) △포스코이앤씨(친환경부문) △HDC현대산업개발(커뮤니티부문) △금호건설(신주거시설부문) 등이 이투데이 대표이사상을 받았다. 정용욱 기자 dragon@

## 후분양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 사다리’ ... 인재육성·사회공헌 ‘사랑으로’

종합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 (주)부영주택



(주)부영주택은 대한민국 주거문화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과 후분양아파트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주)부영주택은 올해 본지가 주최한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종합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주)부영주택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다. 주택 브랜드 ‘사랑으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약 30만 가구에 이르는 아파트를 지었다.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한다는 사명감과 확신을 가지고 약 23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급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우선 전국 학교 100여 곳의 기숙사 ‘우정학사’를 기증했다. 캄보디아, 라오스 등 해외 600여 곳에 초등학교 건립을 지원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에 디지털피아노 7만 여대와

교육용 칠판 60만여 개를 기증했다. 국내에 온 해외 유학생들에게는 매년 두 차례로 나누어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또 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등 국내 구호 성금 기탁은 물론, 시에라리온 수해구호금, 페루·콜롬비아 수재구호금, 라오스 댐 붕괴 관련 구호자금 지원 등 해외 구호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주)부영주택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회사 내 보육지원팀을 두고 전국 부영아파트 단지 내에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을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다.

지역 인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학령 인구감소로 지방 대학의 존립 위기가 커지는 것에 공감한 (주)부영주택은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창신대학교를 2019년 8월에 인수했다. 이후 창신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위해 ‘신입생 1년 전역



(주)부영주택은 주거문화 발전과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사진은 (주)부영주택 사옥. 사진제공 (주)부영주택

장학금 지원’이라는 전국최초 장학혜택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부영그룹과 창신대는 연계식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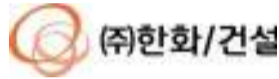
주거 안정을 위해 후분양 단지 공급에도 앞장서

고 있다. (주)부영주택은 부영부산신항 7블럭에 위치한 ‘부산신항 마린에시앙’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후분양 단지는 직접 보고 계약할 수 있어 부실 시공, 하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요자들의 우려를 덜어주고 있던 평가다.



'2023년 우수협력사 간담회'에서 김승모(앞줄 왼쪽 여섯 번째) ㈜한화/건설 대표이사외 임직원, 우수 협력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건설

혁신일자리부문(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한화/건설



임관석(앞줄 오른쪽 두 번째) 자이에스앤디 대표이사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자이에스앤디

산업안전부문(고용노동부장관상) 자이에스앤디



##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 '함께 멀리' 동반성장

㈜한화/건설은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위해 그룹의 경영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일자리 혁신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올해 이투데이가 주최한 '2023 스마트건설대상' 혁신일자리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 ㈜한화/건설은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 성장이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사와 소통 강화 △협력사 역량 향상을 동반성장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4대 실천사항을 2007년에 도입해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

리 교육과 엄격한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화/건설은 매년 토목, 건축, 플랜트, 기계, 전기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협력사들을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해왔다. 수상한 협력사에는 운영자금 대여, 입찰기회 확대 등 혜택이 제공된다. 다양한 금융 자금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 자금 직접 대여, 동반성장 펀드 조성, 신용보증지원, 네트워크론을 통한 간접지원 및 계약금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한 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가 대표적이다. 또 올해부터는 IBK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협약을 맺어 협력사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한화/건설은 9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GS건설 '자이(Xi) CEO 포럼'에 참석한 GS건설 임원과 협력사 대표이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GS건설

동반성장부문(동반성장위원장상) GS건설



## 그레이트 파트너십·CEO 포럼 등 소통 앞장

동반성장부문 동반성장위원장상을 받은 GS건설은 올해까지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 최고 영예인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 GS건설은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를 구성해 하도급 거래 질서확립과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사 경쟁력 강화, 금융·경영 지원, 수평적 소통강화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GS건설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활동은 '자이(Xi) CEO 포럼'이다. 2004년 시작해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각 협력사 대표와 GS건설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임원들이 참석한다. 여기에서는 우수 협력사 시상, GS건설 경영현황 공유 등 상생 협력을 위한

소통 활동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를 통해 GS건설의 외주 제도를 설명하고 협력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동반성장 활동이 이뤄진다. GS건설은 협력사의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한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고위험 공종을 대상으로 '안전 담당자 배치 지원' 제도를 운영해 협력사가 현장에 배치하는 안전 담당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자발적 협력사의 안전 관리 독려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 지급' 제도를 통해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현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 안전담당자들도 'GS건설 안전혁신학교' 교육에 참여시킨다. 상생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의 직·간접적인 금융 지원제도도 운영 중이다.

## 소임직원 안전관리 협력해 '중대재해 0' 달성

산업안전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은 자이에스앤디는 임직원 모두가 협력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고 있다. 자이에스앤디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CEO)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직접 이수했다. CEO가 안전보건 확보 현황과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담당자들과 면담하고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 안전관리자는 법적 인원보다 1명을 더 투입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 안전관리를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공사 규모가 작은 건설공사는 법적 요율에 따라 계상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대부분 인건비로 쓰여 안전시설물 설치, 보호구 지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안전보건 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감독 등에 관한 사례를 격주 1회 이상 화상회의를 통해 현장 소장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위탁 기관 교육, 재해 예방 워크숍도 진행한다. 위험성 평가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현장 관리감독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 현장 지원 교육도 시행된다. 건설공사 현장 상황의 지속적인 확인과 동영상이 기록관리를 위한 CMS 상황실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부실방지를 하는 한편 사고위험이 있을 때 방송을 통해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DL이앤씨의 'e편한세상'은 론칭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했다. 사진제공 DL이앤씨

주거혁신부문(서울시장상) DL이앤씨



## 'C2 하우스' 혁신설계... 층간소음·하자 '제로'

주거혁신부문 서울시장상을 받은 DL이앤씨는 대한민국 주거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 DL이앤씨가 공급하는 주요 단지에는 자사 브랜드 e편한세상만의 기술·상품·디자인·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설계를 채용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거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층간소음 저감에도 앞장서고 있다. 자체 연구기관인 기술연구소의 주택 품질개선 노하우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주거 및 생활 소음을 혁신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DL이앤씨만의 기술인 디사일런트 바닥 구조 패키지를 개발해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하자 제로'와 같은 품질 개선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 고객 만족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품질 관리를 위해 최신 IT 기술 도입에 적극적

으로 나서며 업계 선도하고 있다. 모든 현장에서 균일한 품질을 낼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설계 기술 및 하자 점검 시스템부터 BIM(빌딩정보모델링)과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도 최고의 품질을 위해 활용 중이다. 특히, '건설정보모델링(BIM)' 기술은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DL이앤씨는 6개 스마트건설 분야 가운데 BIM 리딩사로 선정됐다. 건설 중소·벤처 기업을 이끌며 BIM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업계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밖에 DL이앤씨는 주거혁신과 함께 서울내 주택 공급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동대문구 'e편한세상 답십리아르테포레(국민주택)' 과 강동구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을 분양하는 등 적극적인 주택 공급에 나섰다.

해외건설부문(사장상) 대우건설



### 이라크 38억弗 규모 수주... 친환경 공법 적용

대우건설이 축적된 건설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 건설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 대규모 신항만 건설공사에 참여하며 이라크를 대표 거점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공들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2014년 2월 이라크 알포 항만 프로젝트의 출발점인 시알포(AI Faw) 방파제를 시작으로 △컨테이너터미널 안벽공사 (5억1000만 달러) △컨테이너터미널 준설매립공사 (7억2000만 달러) △알포-움카스르 연결도로 (4억4000만 달러) △항만 주운수로 (3억1000만 달러) 등 총 9건의 공사, 약 37억8000만 달러 규모를 수주했다.

대우건설은 이라크 알포 항만 지역 다양한 기



이라크 알 포(AI Faw) 방파제 전경 사진제공 대우건설

술을 적용했다. 먼저 알포 방파제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석재 약 1500만 톤을 약 900km 거리의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조달했다. 또 시멘트 혼합 공법을 배제하고, 친환경적 단계 성토 공법을 적용했다.

신사업부문(사장상) SK에코플랜트



### 그린수소 중심 사업모델 완성

SK에코플랜트는 해상풍력,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부터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활용한 수전해에 이르기까지 해상 풍력 중심의 그린수소 밸류체인을 완벽히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까지 이어지는 전 분야의 사업모델을 갖췄다.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사업 개발부터 기자재 제조 역량까지 갖췄다. 동남해안 해상풍력 등 자체 개발 사업은 물론 부유식 및 고정식 해상풍력 사업도 추진 중이다.

아시아 1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조사인 자회사 SK오션플랜트를 통해 해상 변전소, 부유체 개발



SK에코플랜트가 구축한 해상풍력 기반 그린수소 밸류체인 사진제공 SK에코플랜트

등 사업 확장에도 나서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뽑아내 SOEC는 SK에코플랜트가 지분을 투자한 전략적 파트너 블룸에너지의 기술을 활용한다.

브랜드부문(사장상) 두산건설



### 새로운 슬로건에 We've 골프단 창단까지

두산건설의 주거 브랜드 We've(위브)가 최근 We've got everything이란 슬로건 아래 5개의 콘셉트로 재정립되면서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We've는 쾌적한 주거환경, 삶의 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두산건설의 노력으로 탄생한 아파트다.

We've 콘셉트중 Have는 '갖고 싶은 공간', Live는 '기쁨이 있는 공간', Love는 '사랑과 행복이 있는 공간', Save는 '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 Solve는 '생활 속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을 뜻한다.

두산건설은 We've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



두산건설 주거 브랜드 We've(위브)의 슬로건. 사진제공 두산건설

해 올해 두산건설 We've 골프단도 창단했다. 골프단은 유현주(Have), 유효주(Live), 박결(Love), 김민솔(Save), 임희정(Solve) 등 5명의 선수로 구성됐고 선수들은 각각 We've의 의미를 대표한다.

커뮤니티부문(사장상) HDC현대산업개발



### 최고 소통공간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이 전북군산시지곡동에 공급하는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입지적 장점을 살려 건설됐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북카페, 스포츠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은 단지 중앙에 배치돼 입주주민의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아파트가치를 좌우하는 조경에도 공을 들였다. 조경은 시그니처라운지와 카페테리아가든, 레이크워크 등으로 구성된다. 시그니처라운지는 진입부대표경관과 중심마당이 통합된 공간 구성으로 단지 구성을 강조한다. 카페테리아가든은 호수공원 자연환경요소를 모티브로 한 테마정원을 중심으로한 복합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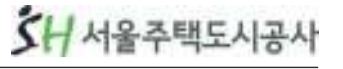


'군산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모습. 사진 제공 HDC현대산업개발

가 공간으로 조성된다. 레이크 워크는 단지를 순환하는 3개의 산책로 및 근린공원과 연결해 단지 내 산림형 테마식재 휴게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8개 동, 총 7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건설문화혁신부문(사장상) 서울주택도시공사



### 직접시공 의무 70억원 이상 확대... 안전 앞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품질 백년주택과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건설 현장 안전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SH공사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시공 의무 대상 공사를 7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단계 하도급은 단계를 거칠수록 공사비가 낮아지고 무리한 시공, 불량자재 사용, 근로자 임금삭감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건설현장의 부실방지와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도 시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허용한다. 안전관리비용이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돼 안전시설물 설



고덕강일2단지 현장의 품질-안전 점검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제공 SH공사

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건설현장의 안전시설물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도 시행하고 있다.

주거서비스부문(사장상) 현대건설



### 스마트 주거공간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입주민의 높은 삶의 질을 위해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지에는 입주민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등의 스포츠시설, 자녀를 위한 작은도서관, 키즈플레이룸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첨단 주거시스템도 적용한다. 스마트폰으로 공동현관 출입, 엘리베이터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도입된다.

스마트폰으로 조명, 난방기기 등을 제어할 수 있는 하이오티(Hi-oT) 스마트홈 서비스도 제공된다. '홈투카-키투홈'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집과 자동차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집에서 자동차



현대건설 키투홈 서비스 브랜드 테크 필름 화면 사진제공 현대건설

시동, 문 잠금, 경적, 비상등, 온도조절, 전기차 충전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다. 자동차에서도 집 조명, 난방, 에어컨, 가스 밸브 제어가 가능하다.

친환경부문(사장상) 포스코이앤씨



### 친환경 건설 선두... 신개념 주차장 개발

포스코이앤씨는 바이오필릭 테라스 평면과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클럽 더샵' 친환경 디자인, 단지 내 식물원 카페 '플랜트리움', 지하주차장 '바이오필릭 주차장' 등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건설사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개발한 친환경 중대형 평면 '바이오필릭 테라스'는 기존 평면들의 가장자리에 있는 발코니와는 달리 설계부터 자연 친화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햇빛을 직접 받을 수 있고, 거실이나 주방과 바로 연결해 정원으로 효율을 높인 별도 공간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기존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더샵 바이오필릭 지하주차장 모습. 사진제공 포스코이앤씨

가치와 문화를 입힌 '바이오필릭(Biophilic) 주차장'도 개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또 식물원카페인 '플랜트리움(Plantrium)' 구현에 성공했다. 이밖에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인 '클럽 더샵'도 자연과 가까운 디자인을 개발했다.

신주거시설부문(사장상) 금호건설



### 애월읍 신주거문화 리더 '제주더힐테라스'

금호건설이 만든 제주 첫 프리미엄 주거단지 '제주더힐테라스'는 고급 감성과 첨단 기술로 건설돼 제주 내 신주거문화를 이끌 전망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층, 14개 동, 2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68·74·80·85㎡ 평형으로 구성되며, 제주도 내에서도 인기 지역인 애월읍 일대에 들어선다. 입주는 내년 1월 예정이다.

제주더힐테라스는 한라산과 바다가 보이는 탁 트인 조망권 설계로 고품격 주거단지로 입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관심 또한 높다. 향후 애월읍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단지 특징은 모든 가구마다 개별 테라스



제주더힐테라스 조감도. 자료제공 금호건설

를 설계해 공간 활용성을 강화했고, 1층 일부 가구에는 특화정원을 제공한다. 기존 국내 테라스하우스와 차별화해 이국적이고 품격있는 단지 경관을 연출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삶에 풍요로움을 선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람을 향한 더 나은 세상

모두가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작합니다



## 살고 싶은 집과 도시, 국민의 행복을 위한 8대 비전



고품질 주택  
80만호 공급



주거복지  
200만호 제공



스마트시티  
250km<sup>2</sup> 조성



국가 균형발전  
지원 강화



온실가스  
288만톤 감축



대국민 서비스  
100% 디지털 전환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청렴고객만족·안전  
최고등급 달성

# “르노는 테크놀로지 기반 성장하는 자동차 회사”

##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

‘인베스트코리아서밋 2023’서 미래 모빌리티 전환계획 공개 “볼보 CMA 플랫폼 하이브리드 내년 하반기 출시 목표 개발 중”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자동차회사.”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 사장이 밝힌 르노코리아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이다.

르노코리아는 드블레즈 사장이 지난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에 참가해 국내 투자 성과를 소개하고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드블레즈 사장은 이날 인베스트 코리아 컨퍼런스에 연사로 나서 “르노코리아가 국내 진출 후 23년간 국내 누적 투자액 5조 원을 바탕으로 누적 생산 370만 대를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해외수출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이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의 인베스트 코리아 콘퍼런스에 연사로 나서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르노코리아자동차

이어 그는 “한국의 우수한 산업 및 인적 인프라가 외국인 투자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르노코리아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으로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자동차회사’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르노코리아는 내년부터 최신 하이브리드 기술을 포함, 친환경 전동화 차량으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

다. 현재 르노코리아는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볼보 CMA 플랫폼 기반의 하이브리드차(HEV)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이 차량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HEV, 전기차 등 총 3종의 차량을 선보이는 ‘오라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드블레즈 사장은 르노코리아가 르노그룹의 하이엔드 중형 및 준대형 세그먼트

차량 개발과 생산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루카 데 메오 르노그룹 회장의 첫 방한을 성사시키며 르노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로드맵에서 르노코리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당시 데 메오 회장은 르노코리아에 향후 6년간 수익 유료를 투자해 한국을 중대형 차량 수출 허브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미래 모빌리티 전환과정에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역량도 강화해왔다. 이를 통해 차량 내에서 주문과 결제는 물론 상품 수령까지 가능한 간편 결제 시스템 ‘인카페이먼트(In Car Payment)’, 실시간 정비예약 서비스 ‘패스트트랙 예약’ 등 업계를 선도하는 혁신 솔루션을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선보이며 소비자 편의를 높여왔다.

한편 취임 2년 차를 보내고 있는 드블레즈 사장은 르노그룹에서 다양한 차량 개발을 총괄 지휘했던 엔지니어 경력을 바탕으로 르노코리아의 신차 개발은 물론 2년 연속 무분규 노사교섭, 임직원 소통 강화 등 경영정상화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민재 기자 2mj@

## 이운태 前 삼성전기 대표 LX세미콘 CEO에 내정



LX세미콘이 8일 2024년 임원인사를 단행하고 최고경영자(CEO)로 이운태(사진) 사장을 내정했다.

신임 CEO에 내정된 이운태 사장은 서울대 전기공학 학사, 카이스트 전기공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개발실장, 삼성디스플레이 LCD 개발실장, 삼성전기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 사장은 삼성전기의 경영을 맡은 뒤 과감한 투자와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해 삼성전기의 사상 최고 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임원 인사에서는 한영수 이사가 상무로 승진했고, 박정현 책임연구원이 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송영록 기자 syr@

## bhc 대표이사에 이훈중 부사장 박현중·임금옥 이사 해임 의결

bhc가 8일 이사회를 열어 임금옥 대표 이사를 해임하고 사내이사인 이훈중 최고 재무책임자(CFO) 겸 부사장을 새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사내이사는 현재 bhc의 임원 선임 관련 내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전문경영인(CEO) 선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bhc 이사회는 이날 아웃백스테이크 하우스 코리아 등 산하 자회사에서 박현중 이사와 임금옥 이사를 해임하고 각 신임이사 및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안건도 함께 결의했다. 박현중 전 글로벌고메이 서비스(GSS) 대표는 아웃백스테이크 하우스 코리아 대표도 맡아왔다. 문현호 기자 m2h@

## 캄보디아·태국·인니 청소년에 KB국민카드, 기부 물품 전달

KB국민카드는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현지법인을 통해 해외 진출국 취약 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부 물품들은 KB국민카드 임직원 및 고객이 참여해 언택트(Untact) 방식으로 만든 재능기부 봉사 물품이다.

캄보디아는 현지법인 ‘KB 대한 특수은행(KDSB)’에서 ‘캄퐁 및 프놈펜’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태양광 랜턴 800개, 금융동화 팝업북 400권, 원목 독서대 700개를 전달했다. 이중 ‘금융동화

## ‘편톡’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는 LG전자 경영진

지난해 1월 조주완 사장 시작으로 최근 배두용 CFO까지 모두 9차례

LG전자가 최고경영자(CEO)와 구성원 간 격의 없는 소통 창구로 마련한 ‘CEO 편톡(F.U.N. Talk)’이 회사사내 최고경영진의 소통으로 확대되고 있다.

8일 LG전자에 따르면, 배두용 부사장은 최근 직원들과 3분기 경영실적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경영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CFO 편톡’을 진행했다.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과 관련된 수치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 사업 포트폴리오 변

화 노력이 수치로 나타나는 변화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준비 전략 설명도 가졌다.

편톡은 구성원의 F.U.N.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LG전자만의 소통 방식이다. ‘구성원의 F.U.N. 경험’은 △회사의 주요 소식을 구성원들과 가장 먼저(First) 공유하고 △소통에 참여하는 구성원에게 특별한 경험(Untact)을 선사하며 △진부하지 않은 새로움(New)을 느낄 수 있는 소통의 경험을 의미한다.

편톡은 조주완 사장이 지난해 1월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됐



LG전자 CFO 배두용(가운데) 부사장이 실시간으로 직원들과 ‘CFO 편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다. 조 사장은 편톡 중 실시간 채팅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한 직원의 특남 소식에 육아용품 선물하는가 하면, 생일을 맞은 구성원에게 깜짝 케이크를 보내는 등 재미있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 신세계, 문화예술후원기관 인증...문체부 장관상 수상

신세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후원기관 인증사업’에서 청년작가 후원 및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은 정부가 모범적인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펼치고 탁월한 후원 성과를 일궈낸 기관(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장관상이 신설됐다.

신세계는 장애인 예술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기 후원 등 오랜 진정성을 인정 받아 첫 문체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인증 사업이 처음 시행된 2015년에도 우수기업으로 최초 선정됐던 신세계는 2018년, 2021년에 이어 네 번째 인증을 받게 됐다.

신세계는 지난 2000년부터 30여 개 문화예술단체와 협약을 맺고 정기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부산국제

장관상이 신설됐다. 신세계는 장애인 예술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기 후원 등 오랜 진정성을 인정 받아 첫 문체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인증 사업이 처음 시행된 2015년에도 우수기업으로 최초 선정됐던 신세계는 2018년, 2021년에 이어 네 번째 인증을 받게 됐다.

신세계는 지난 2000년부터 30여 개 문화예술단체와 협약을 맺고 정기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부산국제



신세계 본점에서 열린 블라섬아트페어를 고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영화제 등 다방면에 걸친 문화예술 행사에 최근 3년 간 약 90억 원을 후원하는 등 문화예술 진흥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 DB손보, 프로미카 파트너십 ‘투게더 프로미스!2024’ 개최

DB손해보험은 프로미카서비스센터 파트너십 콘퍼런스 ‘투게더 프로미스! 2024’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는 정종표 DB손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자동차보상 전 임원 및 협력업체 대표와 현장출동업체 대표 등 164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를 되돌아보고 내년 상생전략을 공유하고, 지역별 우수협력업체에 대한 품질경영대상 상상을 진행



DB손해보험 정종표 사장과 임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들이 ‘DB 프로미카서비스센터 파트너십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DB손해보험

했다. 친환경부품인 품질인증부품과 대체부품, 유리·타이어 휠 복원수리 과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정 대표는 “DB손보와 협력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올바른 보험정비 문화를 실현하고, 고객중심 서비스 차별화를 지속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ij@



7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된 기부 물품 전달식에서 KB국민카드 현지법인 KB대한 특수은행 임직원과 윤롱간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KB국민카드

팝업북’은 현지 전래동화를 활용해 저축의 필요성, 합리적인 소비 생활 등에 대해 소개하는 경제·금융교육 교재이며, 함께 전달된 태양광 랜턴과 원목 독서대는 학습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구 역할을 한다.

태국은 ‘KB 제이 캐피탈(KBJC)’이 방콕외곽에 위치한 ‘푸타몬톤’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사랑의 예코백 300개와 나눔상자 200박스를 전달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KB 파이낸시아 멀티 파이낸스(KB FMF)’는 자카르타 ‘반타르게방’ 지역의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KB금융 캐릭터를 도안으로 임직원 및 고객이 직접 채색해 만든 티셔츠 1500장을 기부했다. 서지연 기자 sij@

# 구조개혁 필요한 '제로성장' 한국 경제

## 논현로

### 곽노성

동국대 명예교수  
前 국제통상학회장



따라서 AI와 시스템반도체 등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차전지 등 신규 성장산업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다변화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중국변수(우리 수출의 25% 내외 차지) 또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이후 기대했던 중국시장이 미중 간 갈등과 부동산시장 붕괴, 부품의 자체 생산이

### 단기요법으로는 저성장 해결못해 반도체 의존 줄일 산업재편 절실 고령화 따른 생산성 하락 극복해야

라는 변수에 막혀 기대 이하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 대체 생산기지 제 공과 함께 첨단 및 하이엔드시장 공략 등 중국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 요한 시점이다.

한편, 통제가능한 변수라는 점에서 내부적인 구조문제에는 희망이 있다. OECD와 맥킨지 등이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 성 하락, 노동, 교육 및 연금구조 개혁 의 지체다.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와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급히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

안이다.

해외 고급 및 산업인력의 국내 정착 유도와 공장자동화, 그리고 고령인구 맞춤형 생산현장의 조정(예를 들어 BMW의 고령자 포용적인 공장설계) 및 고령인구의 전문성 활용(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MHI Executive Expert의 예) 방안의 마련을 추천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생산성에 따른 보상시스템의 정착과 여성인력의 경력 단절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한 정부의 보상 등 제도마련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본다.

교육제도는 인적자본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다. 성장산업에 대한 고급인력 공급을 위한 대학 및 학과별 정원의 탄력적 조정과 함께 이젠 패스트 팔로어가 아닌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퍼스트 무버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금의 경우 기득권적인 성격(entitlements)이 있어 현행 보상기준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고 선진국으로서 바람직한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기여

분의 인상과 효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인상분 이상의 보상을 나중에 약속해 줄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소득양극화시대에 고소득자는 많이 내고 또 낸 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양립적인(incentive compatible) 제도의 개편을 통하여 연금의 분배적 기능 제고와 기금 고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개혁과정에는 많은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으로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 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다시 한번 나섰다. 올여름 국내 주요 건설사의 공사 전 과정 동영상 기록 동참을 이끌 어낸 데 이어 이번에는 부



전보규  
부동산부 차장

이다.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가칭)’도 만들기로 했다. 어떤 규제나 제도보다 건설 현장을 지켜보며 품질을 챙기는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때로는 발주자의 부족한 경험과 정보가 부

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교육과 함께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등의 역할도 한다.

폭넓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건드려야 하다 보니 ‘부실공사 제로’를 향한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건설업계도 마냥 반기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만 고민하거나 격렬히 저항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를 해볼 만하다. 건설업

## 부실공사 근절도 ‘원팀 코리아’

근, 콘크리트 등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정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높이고 수수료를 10% 이상 납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조치로 공사비가 일부 상승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것이라면서 예산을 책정해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의 하도급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여러 번 논란이 된 우천시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번 서울시의 대책은 규제 강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숙련공 양성과 발주자 의식 변화를 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차등노임체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

계도 부실공사 해소를 향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에서도.

7월 오 시장이 동영상 기록을 제안한 다음 날 건설사들은 하나같이 동참을 약속했고 이후 진행된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 60여 개 건설사 27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하며 간절한 부실 방지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어쩌면 건설산업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일 지도 모른다. 부실공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락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게다가 최근에는 부실공사에 대한 민감도가 극에 달했다고 할 정도로 높다.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문제란 의미다.

서울시만의 힘으로 건설산업의 근본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앙부처가 함께 움직여야 가능하다. 해외 수주에서만 ‘원팀 코리아’를 외칠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 근절에서도 ‘원팀 코리아’로 움직이길 바라본다. jbk@

## 이투데이, 밀투데이

☆ 노구치 히데오(野口英世) 명언  
“그 누구보다도 세 배, 네 배, 다섯 배 공 부하는 자, 그게 천재다.”

일본 세균학자. 그는 두 살 때 난로에 떨어져 화상으로 왼손 손가락들이 거의 문드러졌다. 수술받기 가능성의 70% 정도를 회복하게 되자 의사의 길을 갔다. 록펠러 연구소에서 그는 진행성 마비환자의 뇌에서 매독을 일으키는 스피로헤테균을 밝혀냈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876~1928.

☆ 고사성어 / 전거후공(前倨後恭)  
전에는 거만하더니 나중에 공손해졌다는 말. 상대의 신분 변화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인심을 꼬집는 말이다. 젊은 시절 불우했던 소진(蘇秦)은 가족들의 냉대 속에서도 학문에 힘써 ‘합종(合從)의 이론’을 완성했다. 그가 맨 먼저 찾아간 조(趙)나라 왕은 그를 재상에 앉혔다. 6국에 합종책을 설명하러 갈 때 옛집을 들렀다.

괄시하던 형수가 극진하게 모시자 그가 한 말. “이 몸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나인데, ‘부귀할 때는 이처럼 남들의 두려움을 사고 미천할 때는 멸시를 받는구나!’ 부와 명예란 이다지도 대단한 것인가?”

☆ 시사상식 / 유사실업률  
구직 단념자, 취업준비생을 비롯해 주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취업희망자 등을 포함해 산정하는 실업률. 실업자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구직을 포기한 사람, 취업 관련 학원에 다니는 사람, 주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취업희망자까지 실업자로 간주해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취업 준비자와 구직 단념자 등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 산정 시 제외되지만, 유사실업률은 이들을 포함해 산정하기 때문에 실업률보다 실제 체감실업률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채집/정리: 조서관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멧있는 숲 연구소장

## 정치공방 뛰어넘는 정책싸움을

### 노트북 너머

정영인  
정치경제부 기자



근’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듯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침묵을 유지하는 사이 민주당 내에서조차 각기 다른 목소리와 불만이 새어나왔다.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거나 잊힌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홍익표 원내대표는 균형발전을 위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초광역메가시티비전을 다시 꺼내는 동시에 실질적인 김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철 5호선 연

장을 강조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인 교통난 해소로 경쟁구도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환영이다. 다만 여당의 제안에 끌려다니듯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민주당이 말한 유능한 민생정당, 대안정당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민주당에서 자주 들리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말로는 더더욱 그렇다.

실험 가능성만을 방어 논리로 쓴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대안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고민과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정치는 여론조사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이 있다.

아이디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민주당도 시동을 걸고 있는 중이다. ‘성장률 3% 회복’ 제안 같은 정치공방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 oin@

# ‘공약가계부’ 제도입 검토하길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기준 중앙 정부 채무가 1097조80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결산 채무보다 64조4000억 원 늘어난 것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가 줄곧 긴축재정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경기 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가 따르지 않고, 고금리로 국채 이자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내년에만 30조 원에 육박하는 국채 이자를 비롯한 의무 지출과 삭감 불가능한 경직성 경비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은 넉넉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력이 약화할 것은 물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도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에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 비율은 코로나 기간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2년 말 현재 54.3%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도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미국과 여타 유럽 국가들보다도 한참 여유로운 수치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이거나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준기축통화국으로 한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통화 자체가 ‘경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이들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IMF는 10월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으로 관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에 가장 빠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내년 4·10 총선이 5개월 정도 남았다.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은 국민에게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였다. 진보 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약 상당수가 사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안정된 재원 확보 계획 등이 부족한 채 정치적 의도에서 급하게 도입되었다.

## 박덕배의 금융의 숲

국민대 겸임교수  
국제통상학과



선심성, 장밋빛 하드웨어적 토목공사 공약이 난무하고, 구체적 분석 없이 4차산업 육성이나 숫자 늘리기식 청년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도 경쟁적으로 쏟아내었다.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데에는 이러한 복지성 포퓰리즘적 공약(空約)도 한몫하였다.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서도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이나 입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냉정히 말하자면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가능한 한 국가 재정을 아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부딪혀 있다. 현재 국내 경기 회복세는 뚜렷

하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약에 대한 책임 소

재를 분명히 하고, 임기 중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변화에 대해서도 냉철히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과거 일시적으로 도입되었던 모든 공약에 드는 재원을 계산한 뒤 이를 조달하는 방안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약가계부’와 같은 제도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약 등은 우리의 상황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 쌓아온 경제성장의 몫이 적절한 재정 정책을 통하여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복지도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OECD 국가 간 공공사회복지지출 지표를 보면 한국은 최하 수준이다. 갈수록 재정 여력이 약화하고 있지만 정책적 고민을 통해 사회통합과 소득·부의 불평등 완화를 꾀해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GDP대비 정부부채 이미 과다한데

## 총선 앞두고 선심성空約 난무예상

## 미래위해 든실한 국가재정 절박해

#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서 해결될 일인가

## 사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일반 예상대로 대기업이 ‘독박’을 쓴 기형적 인상안이다. 오늘부터 산업용 대용량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0.6원 오르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됐다. 가정용과 일반용(공공·상업) 요금도 종전대로 유지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용량 소비자는 산업용 고객 약 44만 호 중 약 4만 2000호다. 전체 고객을 모집단으로 잡으면 0.2%에 그친다. 그러나 전력 사용량은 26만 7719기가와트시(GWh)로, 총사용량(54만 7933GWh)의 절반(48.9%) 가까이 차지한다. 해당 기업들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4200만 원이다. 이번 인상으로 기업당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이 200만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한전은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추가 인상의 여지도 남겼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정용·일반용 가격을 건드릴 리는 없다. 원가 압박 등에 못 이겨 추가 인상을 해도 또 대기업을 괴롭히는 선에 그칠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어느 각도로 봐도 ‘땀질 처방’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번도 그렇고, 다음번도 그럴 것이다. 배경은 이해가 가지만 도저히 찬성할 수는 없는 단세포적 선택이다. 그 무엇보다 한계 상황을 넘은 한전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국

가 에너지 대계도 중장기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마련이다.

한전 누적 적자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7조 원에 이른다. 부채는 상반기 기준 201조 원에 달했다. 전력 구매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은 역마진 현상이 장기간 계속된 탓이다. 상품을 원가보다 싸게 파는 가게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철칙이다. 구멍가게만이 아니다. 거대 에너지 공기업도 시장 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한전은 부실 덩어리다. 하루 이차 비용만 해도 약 118억 원에 달한다.

근본 책임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폭주와 정치 요구에 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반시장적 구조 속에서 한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도 전임 정부는 5년 동안 전기요금을 단 한 차례 올리고 말았다. 전임 정부 스스로 세운 원가연계형 요금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전임자 탓만 할 수는 없다. 국민 이해와 협조를 구해 과감히 전기요금 현실화에 나서는 대신 땀질 처방으로 시간 낭비만 거듭한 허물이 크다.

더 늦기 전에 정치 요급의 잔재를 씻을 연료비 연동제를 확립하고, 독립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요금을 조율할 수 있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 에너지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이고 우리 기술 경쟁력도 탁월한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대계를 세밀히 재정립하는 과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둘러야 한다. 시간은 더 기다려주지 않는다.

# 손정의도 탄식한 ‘위워크 파산’

## 시론

공안섭  
재미언론인



세계의 배꼽이자 뉴욕 부동산 시장의 꽃 맨해튼. 이곳 마천루들은 지금 백적간두에서 있다. 팬데믹 파장으로 사무실 공간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금리압박으로 가뜩이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위워크(WeWork) 파산 후폭풍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파산설이 처음 나온 이후 위워크 주가는 90% 폭락했다. 회생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다. 지난 달 만기가 도래한 이자 9500만 달러를 내지 못했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또다시 7일간의 유예에 대해 채권자들과 합의를 해야 했다. 위워크는 거듭된 경영난에 결국 7일 미국 뉴저지주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한때 부동산 분야 스타트업으로 혜성같이 등장해 유니콘으로 각광받던 위워크가 어쩌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침몰하게 됐을까. 2011년 설립돼 8년 만에 기업 가치를 470억 달러까지 끌어 올렸던 위워크를 좌초시킨 건 무리한 목표 설정, 방만한 자금 관리, 리더십 부재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결정타를 안겨 준 것은 팬데믹이었다.

### 무리한 목표, 방만한 경영이 실패 원인

회사 측은 무리하게 확장을 밀어붙였는데, 예기치 못한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사무실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사무실 건물 시장에 공동화 현상을 몰고 올 것이라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회사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던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도 “내가 어리석었다”고 투자 실패를 자인했을까.

전 세계 39개국 777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던 거대 사무실 공유기업 위워크. 뉴욕에만 47개의 오피스 빌딩을 갖고 있던 위워크의 파산은 뉴욕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워크가 입주해 있던 건물들은 물론, 다른 오피스 건물들까지 동반 가치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대출을 해준 은행들도 위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위워크에 사무실을 내주었던 건물주들은 동반 파산을 하거나, 건물을 은행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자금 여력이 있으면 사무실을 아파트를 포함한 주상복합 건물로 개조, 재개발하는 곳들도 많다.

### 건물주들 주상복합 개발로 돌파구 모색

뉴욕뿐 아니라 LA, 시카고, 애틀랜타 등 주요 도시 사무실 건물주들은 팬데믹 이후 늘어나는 공실률에 대비해 주상복합 방식으로 재개발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은행에 건물을 뺏기지 않으면 성공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물들은 가치 폭락과 함께 파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위워크가 입주해 있던 건물들은 대부분 새로 지은 A급 건물이 아니라 개보수가 필요한 B, C급 건물들이어서 가치 하락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 사무실 공실률은 20%나 된다.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에 사무실 공유라는 새로운 모델을 들고 나와 막대한 투자와 관심을 끌었던 위워크는 전성기 뉴욕 부동산 임대 계약의 15%까지 차지한 적이 있었으나 지난해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위워크의 성공신화가 잊혀진 지 오래다. 위워크는 이제 대표적인 실패한 스타트업으로 각인돼 있다. 위워크가 남긴 후유증으로 뉴욕 사무실 부동산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 글로벌 시민

#‘고속도로의 꽃’이라면 나는 단연 휴게소를 꼽는다. 천안휴게소 ‘호두과자’, 안성휴게소 ‘국밥’처럼 대표하는 음식을 맛보는 재미도 있고 지친 몸 쉬어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비해 포르투갈 고속도로 휴게소는 규모가 너무 작다. 주차장은 50여 대를 수용할 정도고 식당 메뉴도 음료, 빵, 커피, 스낵류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좀 갖춘 휴게소가 이 정도이고 매점 없이 주유소와 야외 테이블, 화장실만 있는 곳도 많다.

이런 휴게소에서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있었으니 술을 판다는 것이다. 지역 특산주라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맥주, 와인, 위스키 등 그냥 술이다. 한국에서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을 팔던 시절이 있었지만 1996년부터 전면 금지됐다고 한다. 하지만 포르투갈에서는 별다른 규제 없나 보다. 술을 마시든지 말든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묻겠다는 유럽식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으나 나에게겐 생소한 풍경이다.

##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기억을 더듬어 검색해 보니 2007년 4월에 ‘경찰이 오토바이타고 고속도로 불법 질주’라는 기사가 있었다. 현직 경찰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허용하라’는 시위에 참가해서 더 주목을 받았던 뉴스였다.

한국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유럽은 그렇지 않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오토바이들이 쏜살같이 내 차를 추월하기도 하고 주말엔 동호회 사람들이 굉음을 내며 때를 지어 주행하기도 한다. 버스, 트럭, 승용차, 오토바이가 뒤섞여 달리면 위험해서 어쩌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기우일 수도 있겠다.

전 세계 195개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해 단 8개 국가만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통행을 허용하든 금지하든 다 합당한 이유가 있을 터.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의 고속도로 오토바이 통행 규제를 보고 이상해할 대목이겠다.

코임브라(포르투갈)=장영환 통신원

<b>이투데이</b>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LG전자가 응원합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2023. 11. 11 ~ 11. 30

# LG전자 고객 사랑 감사제

대한민국 1등 가전을  
놀라운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한해 동안 보내주시는 사랑을 기본 좋은 혜택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벤트 1** LG전자 가전제품 동시 구매 혜택 [2023. 11. 01 ~ 11. 30]

혜택 1) LG전자 가전 동시 구매 시, 최대 480만 원 혜택

혜택 2) LG전자 오브제컬렉션 라빙 / 에어 페카지 동시 구매 시, 최대 20만 원 혜택

\*상대적 이익 기준, LG전자 양/양프린터 매장 구매 고객 대상  
\*혜택 1의 경우, LG전자 양/양프린터 매장 구매 고객 대상  
\*LG전자 양/양프린터 매장 구매 고객 대상으로 대상 모델,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매장 문의사항 및 LGE.COM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대한민국 1등 가전, 2023년 NCSI 1등 부문 수상-에어컨 / 세탁기 / 냉장고 / 세척기 / 건조기 / 가전종합점 / 로보청소기 / 무선청소기 / 청소기 / 건조기 / 의류관리기 / 차기세척기 / 노트북PC / 정기리빙지  
\*한국상생발전(KCO)에서 진행한 국가고객만족도(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23년 2분기 조사결과 기준, 2023년 7월 조사결과 발표  
\*본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이벤트 2**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기념 경품 추천 이벤트 [2023. 11. 01 ~ 11. 30]

이벤트 기간 내 LG전자 매장(엑스투스점, 백화점) 및 LGE.COM에서 LG전자 가전 제품 구매하고 LGE.COM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하여 LG 스타일러, 스타일바미 Go 등 다양한 경품을 드립니다.

\*당첨 및 추첨 경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첨 고객 본인 부임이며, 본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GE.COM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대한민국 1등 가전, 2023년 NCSI 1등 부문 수상-에어컨 / 세탁기 / 냉장고 / 세척기 / 건조기 / 가전종합점 / 로보청소기 / 무선청소기 / 청소기 / 건조기 / 의류관리기 / 차기세척기 / 노트북PC / 정기리빙지  
\*한국상생발전(KCO)에서 진행한 국가고객만족도(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23년 2분기 조사결과 기준, 2023년 7월 조사결과 발표  
\*본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엘지닷컴에서 확인하세요  
LGE.COM